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361호
2024년 6월호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IN THE USA

www.snuaa.org

news@snuaa.org

미주동창회 캐러비안 크루즈 평의원 회의 개막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 평의원 회의가 6월1일(토)부터 7박 8일간 웨스턴 캐러비안 크루즈 선상에서 개최됐다. 이번 평의원 회의에는 배우자를 포함해 68명이 참가하고 평의원만도 총 44명이다. 특히 전국 지부가 골고루 참여했다. 평의원 의결권 분포만 봐도 가장 인원이 많은 남가주는 22명에 달하고 뉴욕 7명, 뉴잉글랜드, 미네소타, 미시간, 시카고, 워싱턴DC, 커네티컷, 조지아, 로키마운틴, 하트랜드 등이 망라됐다. 미전역서 선후배가 모여 미주 동창회의 미래를 설계하는 뜻있는 행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미주 동창회 최고 의결기구인 평의원 회의는 산하 27개 지부 회장들과 회원 숫자에 따라 각 지부에 배정된 평의원이 참가한다. 또한 종신 이사(실버 및 골드 이상 등 포함)도 회의에 참가하면 평의원 신분을 갖게 돼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올해 열리는 홀수차 평의원 회의에서는 2년 임기의 회장을 선출하지 않는다.

이상강 17대 미주동창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동창회 사업 외에 장학사업이 10개 지부에 2만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등 잘 운영되고 있다”면서 “앞으로 데이타베이스를 정비하고 있고 웹사이트로 회보를 볼 수 있게 되며 paper회보도

전국 각 지부 동문·배우자 68명 참석 자연과 유적 즐기며 동창회 앞날 논의

동문들에게 보내드린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서 17대 미주동창회 고문단과 임원단을 보다 활성화하고 본국 동창회와의 계속된 협조, 미주동창회 인수 인계를 재정비하는 것에도 힘을 쏟겠다고 발표했다. 이채진(문리대 55학번) 동문은 축사에서 “국제 정세가 혼란하고 전쟁도 있고 한국 정치도 여소야대로 우려되는 세상”이라며 “나이가 들면 시련과 도전을 극복할 수 있는 현명한 지혜를 가진다. 김남조 시인의 시 ‘아름다운 세상’에 비쳐진 것같이 크루즈 여행중에도 고민과 우려를 모두 잊고 자연과 유적을 감상하며 총동창회의 번창을 위해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이번 행사에는 또한 동창회를 위해 헌신한 동문들에게 공로패가 전달된다. 모교 발전을 위해 100만 달러를 기부한 박종수 박사에게는 서울대 유희림 총장의 공로패가 전달되고, 서울대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이 수여하는 공로패는 이태로, 이영일, 김창수, 이병준, 이채진, 한효동, 한홍택, 서동영, 임낙균, 최

경선, 김병연, 조상근, 김승호 등 13명의 동문에게 전달된다.

이어서 미주동창회 17대 이상강 회장이 수여하는 공로패는 윤재중, 김창수, 하기환, 박평일, 백옥자, 성낙길, 임영호, 이승훈, 정신호, 박희진, 정세근, 박수경, 임소연 등 13명의 동문에게 돌아간다.

이번 행사 참가자는 다음과 같다. 남가주의 경우, 임춘택 현 회장을 비롯해 민일기 전 회장 등은 물론, 박종수 골드 종신이사를 비롯해 이종모 실버종신이사, 김기형 종신이사, 김자성, 조두연, 전경배, 조정시, 김홍득, 김병완, 이창렬, 이명일, 정현식, 김영덕, 이채진, 강미자 평의원 등이 참석한다. 또한 미주 동창회 집행부를 구성하고 있는 김승배 홍보국장, 백정현 광고국장, 박혜옥 감사장, 백옥자 총무국장, 박평일 장학위원장이 참가한다.

또한 황효숙 18대 차기 회장을 비롯해 신응남(뉴욕) 15대 회장, 윤상래(뉴잉글랜드) 14대 회장, 오인환(워싱턴DC) 12대 회장 등이 참가하고 미시

간 지부 고광국, 고국화, 조병권 평의원, 조상근(뉴욕) 플래티넘 종신이사, 김창수(코네티컷) 골드종신이사 등이 있다. 지역별 평의원을 따로 살펴봐도 김현영, 윤정나(필라델피아), 신정윤(뉴욕), 이준수(시카고), 김순영(로키마운틴), 김명숙(조지아), 동문이 참가하게 된다.

아울러 평의원 회의 이외에도 선상에서는 오인환(문리63) 동문이 나서 ‘한 국민의 기원과 동북 아시아의 장래’라는 제목으로 한민족의 역사와 후대들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강연한다.

한편 크루즈 일정은 첫날(6월1일): 플로리다(Ft. Lauderdale) 출발, 둘째날: 선상 회의 및 휴식, 셋째날: 코스텔(멕시코) 기착해 마야사원과 아름다운 백사장, 이국적인 정글 체험, 넷째날: 로아탄(온두라스) 기착해 아름다운 산호초, 열대 풍경 경험, 다섯째날: 벨리즈시티(벨리즈) 기착해 유카탄반도를 방문하고 마야 문명을 관람하고 역시 열대 야생을 관람, 여섯째날: 코스타 마야(마할우알, 멕시코) 기착해 4곳의 마야 유적을 통해 진정한 마야 문명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일곱째날: 선상 회의 및 휴식, 마지막 밤으로 폐막 행사, 여덟째날: 플로리다(Ft. Lauderdale) 도착이다.

장병희 편집위원

미주동창회 주소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Tel: 818-395-1967 Email: snuaausa17@gmail.com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공식 명칭은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USA입니다. 동창회비와 후원금을 보내주실 때는 pay to the order에 공식 풀네임 또는 약칭 SNUAA USA를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는 기부자들이 세금 보고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비영리단체로, EIN(employer identification number)은 13-3859506 입니다.

환영사



이상강
제17대 미주동창회장

안녕하십니까?
이번 33 차 평의원 회의를 이곳 western Caribbean cruise 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동창회장에 취임한 지도 일년이

“미주동창회 발전을 위한 아낌없는 성원을”

지났습니다. 그간 지역 동창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자 3곳 지부를 방문했습니다. (New York, Heartland, Washington DC) 또한 장학금 보조로 10개 지부에 20,500불을 지급하였으며, 장학 후원금은 요청하는 지부에 보내 드리고 있습니다.

각 지부 장학금 지원 외에 미주동창회에는 또 한가지 장학사업이 있습니다. 한홍택 박사께서 주관하는 SNUAA Scholars Program 입니다. 현재는 박평일 장학위원장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고광국·고국화 동문 부부께서 100만 달러 기부를 약속하셨습니다. 올해 1차로 10만 달러를 출연

해주셨습니다.

또한 한홍택 박사께서 오만불을 출연했고 저 또한 작년부터 만불씩 출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여러분들도 함께 하고 계십니다. 17 대 미주동창회와 한홍택 박사님이 주관하는 SNUAA Scholars Program 의 성공과 발전을 위해서 많은 동문님들의 성원과 후원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미주동창회보에 관한 일입니다. 현재 8300 내지 8500부를 매월 인쇄해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작고하신 동문님들 또 귀국하신 동문님들 그리고 주소가 중복된 동문님들도 계십니다.

현재 저희는 Database를 재정비 하고

있습니다. Information이 확실한 동문들께는 계속 paper 회보를 보내 드릴 것입니다. 혹시 회보를 못 받아 보시는 일이 발생하면 저희에게 연락주시면 보내 드리겠습니다.

또 회보는 웹사이트를 통해서도 보실 수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간단히 몇가지만 말씀드렸고 그 외에도 동창회에서는 여러가지를 구상하고 또 실행하고 있습니다.

제 33차 크루즈 평의원 회의에 참여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여행에서 즐거운 시간과 뜻있는 추억을 간직할 수 있는 잊지 못할 여행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환영사



황효숙
(미주동창회 차기회장)

존경하는 서울대 미주동창회 평의원님들과 선후배 동문님들, 제 33차 평의원회에 오심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특별히 멀리 고국에서 성원해 주시는 유홍림 총장님, 김종섭 총동창회장님과 모교 동창

“17대 동창회 활성화 사업과 노력에 감사”

회 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웨스턴 캐리비안 크루즈 선상에서 개최되는 이번 평의원회에서 캐리비안해의 아름다움과 마야문명 유적지들의 관광을 즐기시며 낭만이 넘치는 좋은 추억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미주동창회는 지난 23년간 전임 회장님들의 비전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재정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견고하게 성장하며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회장님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1년간 이상강 회장님께서서는 동창회 재정 자립을 위해 노력하시며 미주동창회 장학사업 추진에도 기여하셨습니다. 각 지부 동창회의 활성화를 위해 긴

밀한 소통, 방문, 장학금 수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셨습니다. 주소록 재정립을 통해 미주 동문회의 실제 파악을 해주셔서 지속가능한 동문회의 조직적 기반을 재정비하고 운영방향을 정하는데 큰 도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속가능한 동문회는 미주 동창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중 하나입니다. 미주동창회의 고령화, 4차 산업혁명, 세계1의 저출산 위기를 동반한 한국 인구구조의 변화, 코로나19 이후 더욱 가속된 디지털시대의 도래 등 변화로 인하여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평의원회의에서 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미주동창회로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각 지부의 활성화와 젊

은 동문들의 적극적 참여를 장려하는 실천가능한 계획들이 많이 논의되기를 바랍니다.

모교와의 긴밀한 소통과 교류가 어느때보다 중요함을 인식합니다. 세계적인 대학으로 우뚝선 서울대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맞추어 모교와 미주동창회가 한마음이 되어 상호 협조하며 발전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랑스러운 서울대 미주 동문님들과 평의원님들, 끊임없이 동문회를 위해 보여 주신 관심과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선후배님들과의 만남을 즐기시고 미주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창의적 의견발표와 활발한 토론의 광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유홍림 총장 공로패

박종수 (수의대 58)
미주동창회 고문 및 골드 종신이사
남가주 수의과대학 동창회 이사장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17대 이상강 회장 공로패

- 윤재중 (농대 55) 알래스카지부 회장
- 김창수 (약대 64) 뉴욕 지부 전화장
- 하기환 (공대 66) 미주동창회 고문
- 박평일 (농대 69)미주동창회 고문
- 백옥자 (음대 71) 미주동창회 총무국장
- 성낙길 (문리대 77) 하와이지부 회장
- 임영호 (공대 72) 뉴잉글랜드 지부 전화장
- 이승훈 (상대 74)종신이사 (남가주)
- 정신호 (자연대 78) 캐롤라이나 지부 회장
- 박희진 (농대 78) 오레곤 지부 회장
- 정세근 (자연대 82) 워싱턴 DC 지부 회장
- 박수경 (생과대 84) 듀오대표 (남가주)
- 임소연 (음대 91) 하트랜드 지부 회장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김종섭 회장 공로패

- 이태로 (법대 50) 남가주 법대 동창회 전 회장
- 이영일 (문리대 53) 미주동창회 고문
- 김창수 (의대 54) 골드 종신이사 (커네티컷)
- 이병준 (상대 55) 미주동창회 3대 회장
- 이채진 (문리대 55) 미주동창회 고문
- 한효동 (공대 58) 남가주 공대 전 동창회장
- 한홍택 (공대 60) 미주동창회 장학위원장
- 서동영 (사범대 60) 종신이사 (남가주)
- 임낙균 (약대 64) 미주동창회 고문
- 최경선 (농대 65) 북가주 지부 전 회장
- 김병연 (공대 68) 미주동창회 고문
- 조상근 (법대 69) 플레티넘 종신이사 (뉴욕)
- 김승호 (공대 71) 종신이사 (뉴욕)

축사

“미주 동문들 성원에 세계적 대학으로 성장”



유흥림
(서울대 총장)

존경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총장 유흥림입니다. 제33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학 일정상 귀중한 자리에 참석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서면으로나마 이상강 회장님과 동문 여러분께 애뜻한 마음을 전합니다.
친애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작년 모교 홈커밍데이에 미주 동창회 동문 62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 동문께서 모교 발전을 위해 많은 기부금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모교를 찾아주셨던 동문 여러분께 거듭 감

사드립니다. 서울대는 앞으로 더 우리 동문들의 성원에 보답하고, 미주 동창회와 네트워크를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랑스러운 미주 동문 여러분!
탁월한 역량과 열정으로 우리 민족과 서울대학교의 위상을 세계에 드높이고 계신 동문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이국땅에서 펼쳐지는 동문들의 활약은 우리 후배들에게 귀감이 되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또한 동문들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대학교는 내년에 관악캠퍼스 종합화 50주년, 내후년에 개교 80주년을 맞습니다. 서울대는 과거의 영광에 안주하지 않고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여러 혁신사업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교의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노력에 동문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참석하지 못해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미주 동창회 평의원회의 성료와 동문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축사

미주동창회 놀라운 단합력에 경의



김종섭
(서울대 총동창회장)

되고 있습니다. 1991년 출범하여 20여 년이 흐른 오늘에 이르기까지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이렇게 성대한 행사를 이어온 미주동창회의 놀라운 단합력에 경의와 박수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많은 미주 동문들이 서울대와 서울대인을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하고 계십니다만, 이번엔 특히 총동창회장 명의의 공로패를 받으시는 동문들께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남가주 법대동창회 회장을 역임하신 이태로 동문님, 17대 미주동창회 고문을 맡아 동문 결속에 힘써주신 이영일,이채진, 임낙균,김병연 동문님, 골드 종신이사 김창수 동문님과 서동영 동문님, 미주동창회 3대 회장을 역임하신 이병준 동문님, SNU 골프동호회 회장을 맡아 봉사하신 한효동 동문님, 17대 미주동창회 장학위원장으로서 봉사하신 한홍택 동문님, 미주동창회 북가주 지부 회장을 역임하신 최경선 동문님, 플래티넘 골드 종신이사 조상근 동문님과 종신이사 김승호 동문님.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또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움츠러들었

던 동문 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는 이상강 회장님께 응원의 말씀과 함께 깊은 존경의 인사드립니다.
친애하는 미주 동문 여러분.
지난 4월 저는 새롭게 2년의 임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2년의 임기는 동문들의 나눔 실천과 재능 기부 채널을 체계적, 다각적으로 구축하는 시간이었습니니다.
취임 이후 총동창회의 모든 친목 행사에 '나눔'의 취지를 담았습니다. 동문 모임이 동문들만의 화합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 사회 소외된 계층에 따뜻한 온기로 퍼질 수 있게 기부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열린 동문 골프대회 또한 나눔 골프대회로 치렀고 특별히 재학생 후배들의 끼니를 지원하는 '천원의 식사'에 수익금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또한 서울대 글로벌 사회공헌단과 협력해 동문들에게 재학생 후배들과 함께 저개발국가 주민을 돕는 기회를 마련, 서울대인에게 부여된 사회 기여란 소명을 국경을 넘어 전 세계를 무대로 실천하고 있습니다.
작년 8월엔 의료계 종사하는 동문 4명이 재학생들과 함께 라오스에 다녀왔고,

오는 8월엔 네팔에서 공헌 활동을 이어갑니다.
올해 1월 남가주동창회가 주최한 '2024 세계 난민구호 신년음악회' 와 작년 6월 미주동창회가 개최한 '한미동맹 70주년 평화음악회'를 본회가 적극 후원한 것은 미주동문 여러분들께서도 익히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듯 동창회 모임 참여가 곧 보람 있고 즐거운 경험이 되도록 노력했습니다.
더불어 유익한 동창회가 되도록 동문 할인 혜택이 제공되는 병원, 리조트, 호텔, 음식점 등을 꾸준히 확대하는 동시에 업그레이드하고 있으며, 작년 8월 오픈한 서울대 동문 전용 온라인 쇼핑몰 'Mall SNUA'를 전문 운영업체에 이관함으로써 더 많고 더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를 동문 여러분들이 특별한 혜택에 누리실 수 있도록 했습니다.
44만 서울대 동문 여러분들께 자랑이 되는 동창회, 앞으로도 '보람 있고, 유익하고, 즐거운 동창회'가 되기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미주 동문님들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하며 축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이상강 미주동창회 회장님과 동창회 임원 여러분, 미주 각 지부를 대표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평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울대학교 총동창회 회장 김종섭입니다.
제33차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장 7박 8일 동안 크루즈 여행을 병행해 열리는 이번 평의원 회의를 통해 다시 한번 미주동창회의 저력을 실감합니다. 미주동창회는 해외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서울대 재외동창회입니다. 미주 전역을 아우르는 광대한 네트워크와 활발한 친목 모임은 다른 해외 동창회의 귀감이

제33차 평의원 회의 참가 미주동문들

오는 6월1일부터 8일까지 웨스턴 캐러비안크루즈에서 개최되는 제 33차 미주 동창회 평의원 회의에는 동창회 산하 27개 지부 회장과 일반 동문 가족 등 모두 68명이 참가한다. 다음은 평의원 참가자들 명단이다.

동창회 직책	단대	지부
이상강 미주17대 회장	의대	하트랜
김경숙 17대 사무총장	가정	하트랜
한효동 CA 종신이사	공대	남가주
이채진 CA 종신이사	문리	남가주
강미자 CA 평의원	음대	남가주
백옥자 17대 총무국장	음대	남가주
황호숙 18대 차기회장	사대	미네소
민일기 CA 전 회장	약대	남가주
임춘택 CA 현 회장	상대	남가주
윤상래 미주14대 회장	수의	뉴잉글
조상근 플래티넘 이사	법대	뉴욕
박평일 17대 장학위원장	농대	워DC
김영덕 남가주 평의원	법대	남가주
신응남 미주15대 회장	농대	뉴욕

동창회 직책	단대	지부
이준수 IL 재무국장	공대	시카고
박중수 골드종신이사	수의	남가주
김현영 PA 평의원	수의	필라델
조정현 NY 평의원	수의	뉴욕
신정윤 NY 평의원	공대	뉴욕
김자성 CA 평의원	의대	남가주
조두연 CA 평의원	수의	남가주
전경배 종신이사	의대	남가주
김창수 골드종신이사	의대	커네티
고광국 MI 평의원	공대	미시간
고국화 MI 평의원	공대	미시간
조병권 MI 평의원	공대	미시간
김명숙 GA 평의원	약대	조지아
김순영 CO 평의원	간호	룩키마

동창회 직책	단대	지부
조정시 CA 평의원	공대	남가주
정현식 CA 평의원	공대	남가주
이종모 실버종신이사	간호	남가주
윤정나 PA 평의원	음대	필라델
김승배 17대 홍보국장	음대	남가주
김병완 CA 평의원	공대	남가주
백정현 17대 광고국장	음대	남가주
박혜옥 17대 감사장	간호	남가주
김홍목 CA 평의원	문리	남가주
오인환 미주12대 회장	문리	워 DC
이창렬 CA 평의원	상대	남가주
김기형 종신이사	상대	남가주
이명일 CA 평의원	약대	남가주

제 3회 SNUAA 스칼러스 장학생 모집 ... 6월말까지 신청 접수

1인당 1만달러, 미주 한인사회 최고 금액

미주동창회(회장 이상강)가 제 3회 SNUAA 스칼러스 장학생을 모집한다. 미주 한인사회 장학금으로는 최대 금액인 1만달러 장학금으로 2022년과 2023년에는 각각 10명을 선발했다.

SNUAA 스칼러스는 리더십과 학업성취도가 뛰어난 한국계 인재들을 발굴해 각 분야에서 지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장학 프로그램으로 부모의 재정 상태는 우선 고려 대상

이 아니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포함 전국의 한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자는 6월 말까지 미주동창회 웹사이트(SNUAA.org)에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800자 내외), 추천서 2통을 이메일(scholarship@snuua.org)로 제출하면 된다. 추천서는 추천인이 직접 장학회에 이메일로 보내야 한다. 장학생 발표는 오는 8월 31일까지 이메일로 개별통

보한다.

1회때는 전국에서 명문대 학생 70여 명이 지원했고 2회때는 110명이 지원해 치열한 경쟁을 펼쳤다. 3회째인 올해는 아직 최종 선발 인원을 확정하지 않았으며 최소 5명 이상은 선발한다는 방침이다.

SNUAA 스칼러스는 기부자의 이름을 딴 지명 장학금으로 운영하는데 현재 미주동창회 이상강 회장, 미주동창회에 100만달러 장학금 기부 약정을 한 고광국·고국화 동문, 새로 후원을 약속한

노명호 전 미주동창회장, 김종섭 모교 총동회장 그리고 장학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홍택 동문 부부 등 5명이 1만달러씩을 지원했다.

한홍택 장학위원장은 “장학금을 주고 싶어하는 동문들이 적지 않지만 지원서를 받아 심사하는 과정이 간단하지 않고 작은 돈으로 시작하기도 뭣해 주저하는 분들이 많다”며 “후원금을 내면 동문 이름으로 지명 장학금을 만들고 동창회가 복잡한 절차와 기금 관리를 투명하게 대신할 것”이라며 많은 후원을 당부했다.

김종섭 총동창회장, UC 어바인에 100만달러 쾌척

서울대와 교류 양해각서 체결 자리서 깜짝 발표

1년에 절반 가까이 남가주에 머물며 남가주 동창회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는 모교 김종섭 총동회장(사회사업과 66)이 한인들도 많이 재학하는 UC 어바인에 100만 달러의 기부금을 쾌척했다.

김 총동창회장은 지난 4월 23일 서울대학교와 교류 양해각서(MOU) 체결 차 한국을 방문한 하워드 길먼 UC 어바인 총장에게 이같은 기부금을 전달했다.

김 회장은 이날 길먼 총장 일행을 삼익아트홀에 초청해 해금연주와 판소리 등 전통음악 공연을 곁들인 환영만찬을 베풀면서 깜짝 도네이션을 했다. 세계 굴지의 악기 메이커 삼익악기를 소유하고 있는 김종섭 회장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사업을 하면서 1년 중 절반 가량은 오렌지카운티 어바인에 거주하고 있어 UC 어바인을 재정 지원하게 됐다

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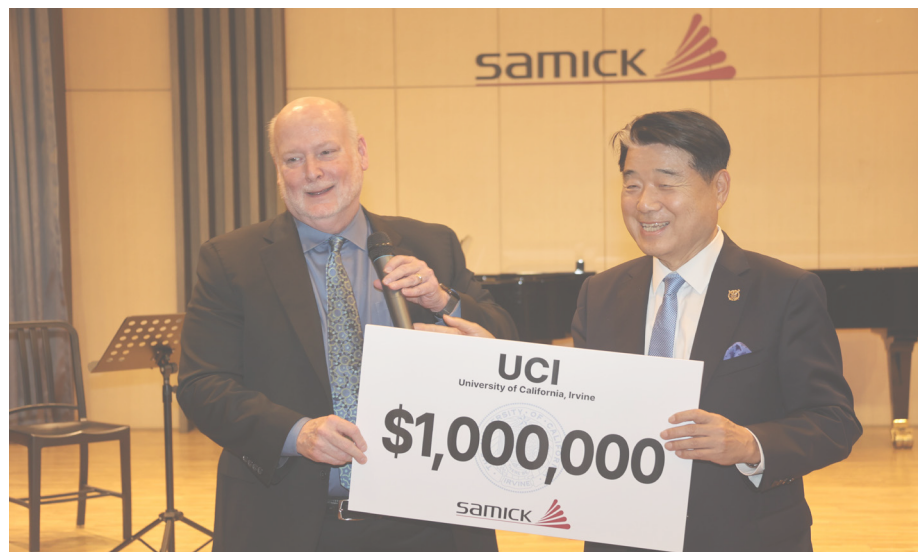
길먼 총장은 이에 “(김 회장의) 기부금으로 대학을 한층 업그레이드할 수 있게 됐다”며 고마워했다. UC 어바인은 과학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를 3명이나 배출한 신흥 명문대다.

이날 행사에는 유홍림 서울대 총장을 비롯해 주요 단과대학장들이 참석했다.

한편 서울대와 UC 어바인은 이번 MOU를 통해 학술 및 인적교류 확대에 합의했다. 특히 바이오메디컬과 의료, 한국학 및 법학 분야에서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이 대학은 어바인에 암치료와 외래환자 진료 등을 중점 커버하는 대형 종합병원을 짓고 있는데 내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서울대도 시



김종섭(오른쪽) 회장이 하워드 길먼 UC 어바인 총장에게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흥에 들어서는 새 메디컬 센터가 의료 연구와 글로벌 협력에 중점을 두고 있다”며 “두 대학 간의 교류협력에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양남주 명예 동문, 서울대 도서관에 24만달러 추가 기부

서울대 명예동문이자 미주동창회 명예 골드 종신이사인 양남주 여사가 지난 5월 3일 서울대 관동도서관 본관 리모델링을 위해 24만달러를 추가로 기부했다.

양동문은 지금까지 중앙도서관 시설 환경 개선기금과 장학금 등에 한국돈으로 5억여 원을 기부하며 서울대와 후학들에 대한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양남주여사는 고액기부자인 고광선 동문의 미망인으로서 고광선 동문의 타계 이후에도 활발한 기부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대는 이날 관악캠퍼스에서 유홍림 총장을 비롯해 양남주 동문, 김기현 발전재단 부이사장, 장덕진 중앙도서관장, 이준환 발전재단 상임이사 등이 참석해 감사패 전달식을 가졌다.

이자리에서 양남주 동문은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이 자신의 꿈과 실력을 키워 글로벌 리더로 성장하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유홍림 총

장은 “서울대가 세계적인 대학으로 성장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데 한결같이 따뜻한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여사님의 뜻에 따라 본 기금은 중앙도서관이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를 양성하고,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를 지원하는데 소중히 활용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표했다.

양 동문은 2013년 제34회 흙커밍데이 겸 서울대 가족친목행사에서도 흔쾌히 1만 달러를 기부하는 등, 고국 방문 때마다 동문 가족의 이름으로도 도서관에 기부한 바 있다.

1967년 미국에 온 양남주 동문은 예버그린 스테이트 칼리지를 졸업하고 1972년부터 미국정부 기관에서 근무했다.

미주 동창회에도 10만 달러를 기부하면서 미주 동창회 명예 종신이사를 맡고 있다. 시애틀의 유니버시티 오브 와싱턴(UW)에도 한국학 박사과정 설립, 연구를 위해 2024년까지 총 150만 달러가 넘는 액수를 기부하는 등 미국내 한



5월 3일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양남주 명예동문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국학과 한국어 연구지원에도 노력해 왔다. 양남주 명예동문은 앞으로 사범대학 역사학과 독립운동사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취재=김인중(농대 74)**



한남체인 하기환(앞줄 왼쪽에서 네 번째) 회장이 지난 4월22일 서울 삼익아트홀에서 서울대 총동창회가 수여하는 '관악대상' 을 전달받았다. 작은 사진은 관악대상 상패와 메달.

하기환 동문 '관악대상' 전달받아

한남체인 하기환 동문이 서울대학교총동창회(회장 김종섭)가 수여하는 '관악대상' 을 수상했다.

한국을 방문 중인 하기환 회장은 지난 4월 22일 서울 강남에 있는 삼익악기빌딩 3층 삼익아트홀에서 열린 행사에서 관계자들의 축하 속에서 상패와 메달(순금메달 30돈)을 전달 받았다.

서울대 공대(전기공학) 63학번인 하 동문은 미국에서 성공한 기업인으로 동창회 활성화와 모교 발전 뿐 아니라 국가위상을 높이는 데 헌신한 자랑스런 동문으로 이번 상을 받게 됐다.



또, LA한인회장, LA한인상공회의소 회장, 미주 한인상공인연합회장

등 한인 단체장을 역임하며 한인사회 발전에 기여한 점도 높이 평가 받았다.

하 동문의 이번 관악대상은 원래 2023년 시상식 때 받았어야 했는데, 그동안 바쁜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다가 이날 서울대-UC버버인의 업무협약(MOU) 행사에 참석하면서 뒤늦게 전달 받았다.

하 동문은 "수상자 선정은 앞서 들었지만 이렇게 상패와 메달을 전달받으니 감회가 또 새롭다. 동문들이 주는 상이라 더욱 감사하다"며 "모교가 더욱 발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도호 동문 '스미스소니언의 얼굴' 됐다

한국의 대표적인 설치미술가 서도호(미대 81) 작가의 조형 작품 '공인들'(Public Figures)이 미국 최대 아시아 전문 미술 기관인 워싱턴 DC의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미술관(NMAA) 앞 프리어 플라자에 전시됐다.

지난 4월 27일 공개된 이 작품은 국립아시아미술관 100주년 기념 하이라이트 프로그램으로 워싱턴 DC 내셔널몰을 마주하는 프리어 플라자에서 5년간 관람객에 선보인다. 스미스소니언 지하철역을 이용하는 관람객은 역에서 나오자마자 이 작품을 마주하게 된다.

'공인들'은 작고 수많은 인물이 힘을 모아 거대한 무게의 상판을 들어 올리고 있는 형태로, 영웅주의적 개인주의에 도전하는 개념으로 주목받았다. 한 명의 영웅적인 인물을 지지하거나 특정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는 대신, 사회 속 개별 주체의 역할과 의미를 드러낸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번에 선보인 '공인들'은 이 미술관의 100주년 기념비를 받들고 있는 주춧돌 형태로 제작됐다. 국립아시아미술관 건물 앞에 조형물이 설치된 것은 30년 만에 처음이다.

서도호 작가는 천으로 만든 집 등 대형 설치 작업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스미스소니언 국립아



워싱턴DC 프리어 플라자에 5년간 설치될 서도호 작가의 조형작품 '공인들'. 작고 수많은 인물이 힘을 모아 거대한 무게의 상판을 들어 올리고 있다. [사진 스미스소니언 NMAA]

시아미술관에 작품을 전시한 최초의 현대 미술가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그는 어린 시절을 보낸 성북동 한옥과 판이하게 다른 미국의 아파트 생활을 통해 문화적 괴리감을 느꼈고, 이를 실과 직물을 이용한 섬세한 설치작품으로 구현했다. 한옥을 실제 크기와 동일하게 제작해 공중에 띄우는가 하면, 뉴욕의 아파트를 문고리와 변기까지 표현해 제작하기도 했다.

그의 대표작이 된 '집'은 문화정



체성을 상징하며 '문'은 서로 다른 문화권을 넘나드는 통로로도 해석된다.

서 작가는 서울대 동양화과와 로드아일랜드 디자인 스쿨을 졸업했고 예일대학원에서 조소 전공으로 석사학위를 받았다. 한국 현대 수묵추상의 거장인 서세옥 화백의 장남으로 LA카운티 뮤지엄, 뉴욕 휘트니미술관 등 세계 유수의 뮤지엄들이 그의 작품을 영구 소장하고 있다.

취재=한정희(편집위원 · 미대 81)

방은호 대선배님 영전에 올립니다

100세를 사신 대선배님께서 후배들에게 좋은 삶의 교훈과 모범을 보여 주시는 등 저희들에게 큰 역할을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2024년 4월 14일 영면하시게 되어 이제는 더 이상 건강하셨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어 후배들이 마치 장수의 등대를 잃은 것 같은 느낌입니다.

선배님께서 자상하시고 후배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많으셔서 대화가 끝날 때는 항상 "부인에게도 Say Hello 해달라"는 말씀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음악과 예술에 대한 열정이 대단하셨습니다. 특히 음악 분야에서는 Korean Concert Society 등을 통하여 젊고 유능한 음악가들을 발굴 하여 세계적으로 이름 있는 음악가들로 키우셨습니다. 몇년 전에는 그 연세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전시회를 계획하고 계신다 하여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건강을 위한 열정도 대단하셨는데 마치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하고 싶은 프로젝트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았습니다. 그 건강 비법으로 두가지를 매일 실천하셨는데 그 비법의 하나는 무릎 굽혔다 펴기, 즉 스쿼팅을 매일 밤 취침 전에 30번 이상 하셨다고 하며, 두번째는 팔 굽혔다 펴기, 즉 푸시업을 매일 50번 이상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배님께서 상체 근육과 하체 근육이 모두 짙짙하게 튼튼하셔서 젊은 후배들을 놀라게 하셨습니다.

한 25년 전 경에는 Sligo Creek Golf Course 에서 제가 방 선배님과 round-ing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거리는 짧으셨어도 점수는 좋게 내셔서 놀란적이 있었습니다.

방 선배님으로부터 제가 개인적으로 배운 교훈을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공유하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방 선배님께서 음악과 예술에 대한 강한 열정, 건강유지에 대한 강한 열정이 대단하셨기 때문에 장수하신 것이 아닌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방 선배님은 물론 인생을 오래 건강하게 사신 선배분들을 관찰해 보면 각자가 예외 없이 좋아하는 분야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갖고 계시며 그 열정이 건강 과 장수를 지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장수의 등대를 대신하여 이제는 방 선배님이 지켜 오셨던 "강한 열정의 등대"를 우리들의 마음에 간직한다면 방은호 선배님을 기리는 뜻 깊은 날이 되겠다는 생각합니다.

방은호 선배님, 평생 원하시던 천국에서 영면 하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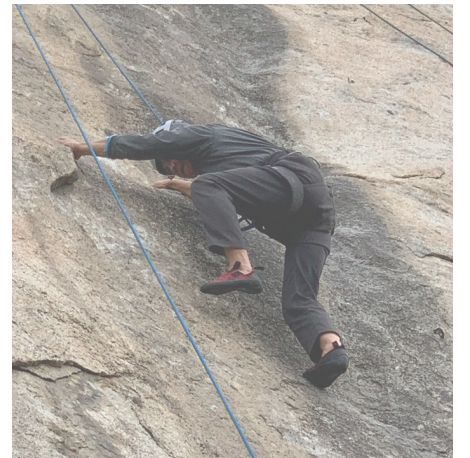
2024.4.18.

후배 오인환 올림
(워싱턴DC · 문리대 63)

“보고, 믿고, 펴고” ... 어느새 등반화가 바위에 ‘착’



지난 5월 4일 리버사이드 카운티 레이크 페리스의 빅락베이에서 암벽등반을 한 남가주 산악대 대원들. 대부분 70~80대이지만 이날 거의 모두 바위에 오르는 등 100세 시대를 맞아 한껏 노익장을 뽐냈다.



바위 정상까지는 무려 100피트. 경사각 70도의 가파른 바위를 남종우(공대 62) 동문이 오르고 있다.



김동근(공대 60) 산악반 대장. 중학생 때부터 암벽등반을 한 프로급 클라이머다.

“(앞을) 보고, (발을) 믿고, (허리는) 펴고...” 절벽 아래서 로프를 당기며 ‘빌레이어(belayer)’가 쩌렁쩌렁 목소리를 높이면 바위에 몸을 맡긴 ‘초짜’들은 따라서 복창한다. “보고, 믿고...” 어느새 등반화가 바위에 밀착, 몸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이 확보된다. ‘빌레이어’는 암벽등반에서 이른바 ‘조교’역할을 하는 가장 중요한 대원이다.

지난 5월 4일(토). 리버사이드 카운티 레이크 페리스의 빅락베이(Big Rock Bay). 서울대 산악대의 5월 산행 장소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암벽등반. 바위를 손과 발의 마찰력으로 오르는, 이른바 슬랩 클라이밍(slab climbing)이다.

파킹장에서 숲길을 따라 나서자 얼마 안가 우람한 바위가 나타났다. 숲이 이 거대한 화강암 바위를 퐁퐁 숨겨놓고 있었던 것. 깎아지른 듯한 바위를 올라가야 하는 난코스다. 바위 정상까지는 약 200피트, 경사각은 70도. 바위 아래서 위를 쳐다보면 현기증이 날 정도다.

이날 산행에 참가한 25명 대원들 가운데 제일 막내는 60대 중반의 두 여성. 나머지는 모두 70~80대다.

김동근(공대 60) 대장은 중·고등·대학은 물론 미국에 유학와서도 바위를 탄 프로급 클라이머다. 요세미티 국립공원의 상징인 ‘엘카피탄’을 먹고 자며 불과 나흘만에 완등에 성공, 한인사회에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남가주 산악대 70~80대 동문들 암벽등반 공대 62 남종우 동문 ‘다람쥐가 따로 없네’

“원리를 알고 나면 정말 쉬워요. 내 발을 믿으면 됩니다. 로프를 하니스에 차고 올라가면 ‘빌레이어’가 여러분의 안전을 책임져주니까 그냥 믿고 올라가세요.”

대원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있는 대장이지만 대부분 앞에 턱 버티고 서있는 바위에 압도당해 서로 눈치만 살핀다.

“제가 한번 도전해볼게요.” 양수진(간호대 80) 동문이 자원하자 모두 놀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초짜, 그것도 60대 중반에 가까운 여성이다. 그가 정상 정복에 성공하고 내려오자 환호가 터져나왔다. 그는 이날 남녀 통틀어 두 번씩이나 등반에 성공한 유일한 대원이란 ‘진기록’을 세웠다. 이후 너도 나도 하니스에 로프를 매고는 바위에 올랐다.

이날 동기부여가 된 또다른 인물은 현장에서 만난 한 미국인 클라이머. 오는 7월이면 90세가 된다는 이 남성에게 호기심이 집중됐다. 그의 ‘무용담’에 귀를 쫓긋 세운 대원들이 기념촬영을 요구하자 흔쾌히 받아들이는 등 이날의 반짝 스타가 됐다.

사이즈 10.5를 신는다는 김자성(의대

79) 대원은 자신의 발에 맞는 신발이 없어 등반을 포기한 상태였는데 80대 동료들의 활약에 자극을 받았다. 사이즈 9.5의 신발을 신고는 기여코 암벽에 오른 것. “발을 신발에 맞추라”는 주변의 터무니 없는 강권에 따라 힘을 냈다.

산악반의 월례 행사는 등산 뿐 아니라 ‘현장 강의’도 겸한다. 단골 강사는 김동근 대장. 소동파의 적벽부를 비롯해 유명 한시를 읊어가며 해설해 대원들의 지식욕구를 충족시켜 준다.

이날의 ‘강의’는 박진국(의대 68) 대원의 ‘미네소타 프로젝트’. “우리가 이처럼 좋은 공기를 마시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것도 미네소타 프로젝트 덕분입니다.” 1950년대 전쟁으로 폐허가 되다시피한 나라를 돕기 위해 미국이 마련한 플랜이다. 의대와 간호대, 농대와 공대의 서울대 출신 학자들을 미네소타 대학에 유학시켜 선진학문과 과학기술을 습득하게 했다. “미네소타야말로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고마운 프로젝트입니다.” 박 동문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다.

또다른 기록(?)을 쓴 이는 남종우(공대 62) 동문. 초스피드로 바위에 오르자 이

에 놀란 ‘빌레이어’ 김인종(농생대 74) 동문이 급제동을 거는 해프닝이 벌어졌다. “선배님, 천천히~.” 그래도 개의치 않자 급기야 톤을 높였다. “종우형! 이제 좀 쉬세요, 제발.” 그제서야 뒤를 돌아보며 왼손을 번쩍 치켜 들었다.

이날 김인종 동문을 비롯해 구시완(의대 69), 박재선(공대 71) 동문은 아침 일찍 현장에 나와 로프를 거는 등 빌레이어로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최복철(공대 70) 동문은 모든 대원들의 사진을 찍어 앨범으로 만들어 카톡방에 올렸다. 덕분에 엄지척을 몇개나 받았다.

김인권(치대 72) 동문은 정동구(공대 57) 동문의 암벽등반과 관련한 역학적 분석에 감탄을 금치 못했다. 역시 공대 출신답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흘러나왔다. 투병생활로 몸이 불편한 김병완(공대 58) 동문도 이날 모습을 보여 대원들로부터 격려의 박수를 받았다.

이날 처음 산행에 참가한 이는 이승섭(법대 65) 동문. “거의 직벽에 가까운 암벽을 오르는 대원들을 보고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며 놀라워 했다. 유혜연(음대 79) 동문은 이날 케이크를 돌리며 생일을 자축했다.

80대가 바위를 타는 모습을 지켜본 한 대원이 고개를 주억거리며 한마디 했다. “요새는 자기 나이에서 30을 빼야 되요.” 시쳇말로 ‘80 is new 50’이란 말일 터다.

중소기업 경영합리화 위해 한국에 처음 MBA 도입

남가주 법대 56학번 이재권 동문

LA한인사회 올드타이머인 이재권 동문(법대 56)을 만났다. 이미 88세가 됐지만 아직도 현역이다. 은퇴를 하긴 했지만 바쁘다. 상공부 공무원으로 시작한 커리어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사실 이 동문은 한인타운 건설에 큰 공로가 있다.

이재권 동문은 법대가 법학과와 행정학과로 나뉘어 있을 때 행정학과 56학번이다. 4.19가 지난 1961년2월에 졸업했다. 행운이 겹쳐 1년 반짜리 군대를 다녀왔다. 사법시험도 봤지만 아까운 성적으로 떨어졌고 이듬해 있었던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공무원이 됐다.

“성적이 좋으면 희망 부서로 보내주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상공부를 희망했습니다.”

당시 상공부에는 2명이 배정됐고 이재권 동문은 중소기업과로 발령이 났다. 당시에는 소위 재벌이라는 것이 육성되기 전이었다. 한국일보 사주인 장기영 부총리가 다른 권력자와 마찬가지로 한창 개발 정보를 이용해 땅투기를 할 때다. 부동산 말고 돈 만들 구석이 없었다는 얘기다. 그래서 중소기업 육성을 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은 중소기업과는 항상 바빴다. 이 동문이 적극 추진했던 것중 하나가 협동조합법 제정이다. 금융은 원래 재무부 소관이었지만 상공부서로 협조가 이뤄져 가능했던 일이다. 그 다음이 매우 구닥다리로 경영되는 중소기업 경영 합리화 작업이다.

“그 옛날에는 전부 주먹구구로 했잖아요. 첫 데이터도 없고 주먹구구로 했는데 경영 합리화 시켜야 되겠다는 것이 상공부의 주요 과제였습니다.”

청년 공무원 이재권 동문은 미국식 MBA(경영학석사)과정에 착안했다. 당시에는 상학과는 있었지만 경영학과, 경영이라는 단어조차 없던 시절이다. 학부보다는 대학원에서 운영해야 하는데 이 동문이 모교 서울대 보다는 당시에 기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던 고려대가 알맞은 것 같아서 먼저 제안했다.

“당시 윤병욱, 김현욱, 이준병 등 내로라 하는 교수들이 있었죠.” 하지만 새로운 것을 시작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어디에나 어려운 법이다. 고려대 측은 상공부의 권유에도 일단 고사했다. 그래서 당시 청년 공무원인 이 동문은 정부 지원금을 줄이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또한 지원금을 몰아주기로 약속했다. 다행히 설득은 통했고 MBA과정을 시작하게 됐다. 한국에서 첫 MBA과정의 시작이다.

이 동문은 스스로 첫번째 학생으로 자원했다. 당시 MBA가 무엇인지 잘 모를 때니 학생 모집이 쉬울 리가 없다고 예상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이 동문은 학교 측에 20명을 장담하고 시작했다. 막상 프로그램을 알리니 학생이 물밀듯이 밀려와 160명이 등록했다. 비록 연구 과정이었지만 5.16이후라서 군대에서 정부로 넘어온



이재권 회장과 부인 이성호 여사의 최근 모습. 슬하에 3남이 있다.

상공부 공무원으로 경제 발전 일조 북한 탈북자돕기 ‘북한인권법’ 앞장 RV파크 운영하며 박대통령 기념사업

군출신들이 대거 등록했던 것이다. 그리고 바로 다음해 석사 과정이 개설됐다. 이듬해부터는 서울대, 연세대도 과정이 개설됐다. 이제 한국에서는 대학마다 경영대학원이 개설됐고 중소기업인들이나 공무원, 군인들에게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고 대학 운영 자금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자 프로그램이 됐다. 어차피 때가 되면 MBA과정이 개설되겠지만 청년 공무원 이 동문이 1호 학생이 되면서까지 강권했던 덕분에 그 시기가 당겨졌고 이후 경제 발전에 큰 도움이 됐을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다.

당시 대한민국 정부에서 3곳의 ‘인기 있는 과’가 있었다고 한다. 재무부에서 은행을 관리하던 과, 내무부에서 행정을 관리하던 과, 나머지 하나는 상공부에서 수입을 관장하는 수입과다.

이 동문은 법무관실을 거쳐 수입과에 들어가 과장까지 했다. 외화가 부족하던 시절이니 모든 수입은 상공부 수입과의 승인을 거쳐야 가능했다. 외국산 제품을 수입만 제대로 해도 사업이 되던 시절이므로 수입 승인은 정말 중요한 과정이었다. 당연히 유혹도 많았을 것이다.

한번은 경부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중 장비 수입과 관련해 몇달이 걸리는 승인을 하루만에 해결했다. 국가적인 사업이므로 담당자인 청년 공무원 이재권은 앞장서서 처리했던 것, 그런데 수 개월 후 중앙정보부 남산으로 불려갔다.

새벽부터 오후 8시까지 긴 조사 끝에 사무실로 돌아왔다. 경부고속도로 건설하는데 나라 망한다고 김대중, 김영삼 의원이 공사 현장에 들어놓던 시절이

다. 당시 차관, 장관했던 박충훈씨는 이런 청년 공무원 이재권을 눈여겨 봤음은 나중에 알게 됐다.

결국 이민은 처가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왔다. 많은 사람이 계속 다녔으면 최소한 국장이나 차관보 이상을 했을 터인데 왜 그만뒀냐는 질문을 많이 해온다고 한다.

공무원들이 그만둘 때는 서너 가지 이유가 있는데 대개 스캔들이 많다고 전한다. 1970년 수출진흥과에서 오사카 엑스포를 참가해 수출 진흥을 위해서 총력전을 펼 때였다. 여러 유관부처를 팀장으로 지휘했다. 하지만 실무 책임자인 청년 공무원 이재권은 행사를 마칠 때까지 묶어두고 엑스포가 끝나서야 한달짜리 휴가를 내줬다.

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일화를 하나 소개하자면 일본 주재 대한민국 영사관의 90%는 대한민국 정부가 아닌 재일 동포들의 자금으로 지어졌다고 한다.

이민에 앞서 큰 계기는 3개월 짜리 호주 연수 덕이었다. 세상을 크게 보는 큰 시야를 갖게 됐다. 특히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 아웅다웅 할게 뭐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 의무 근무 연한인 3년을 끝으로 바로 사표를 냈다.

1973년에 미국으로 왔다. 사표 수리가 안됐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왔다. 마침 무역회사 주재원이 돼 해외 수출을 위해서 일했다.

무역회사가 문을 닫는 바람에 부동산 브로커를 변신했다. 거의 50년이 됐기에 같은 시절 부동산 브로커를 했던 사람들이 모두 타계하여 현재 액티브한 한인 최고 부동산 라이선스 소지자가

됐다.

LA한인사회가 LA한인회관을 구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었다. 그때 마침 무역협회장으로 예전에 상공부 장관으로 모셨던 박충훈 전 대통령 권한대행이 LA를 방문했다. LA에서 만난 예전의 상사는 그를 기억하고 그의 한인회관 역할론과 중요성에 대해서 듣고 박 대통령의 결심에 힘을 보탤다. 결국 박 대통령이 5만달러, 무역협회가 10만달러를 냈고 그때까지 모았던 일부 자금과 융자로 30만 달러짜리 한인회관을 세울 수 있었다.

2004년 드디어 은퇴를 했다. 자녀가 어렸을때 캠핑을 좋아했는데 이것이 좋은 기억으로 남았는지 마침 매물로 나온 여행용 RV가 캠핑할 수 있는 RV파크를 샀다. LA한인 타운에서 북쪽으로 1시간 40분거리에 있는 피라미드레이크 인근이다. 175에이커나 되는 곳에 121곳의 사이트를 갖고 있다. 원래 RV파크를 27개 갖고 있던 사람이 적자가 많이 나는 것을 내놔는데 멤버십 파크를 일반에게 개방하고 현직 M&A변호사인 큰 아들이 참여하는 등 주인이 직접 관리하다 보니 적자는 면했다.

팬데믹 전에는 운동주 문학의 밤 행사를 17년간 개최했다. 현재 연방 하원의원인 미셸 박 스틸 의원도 3번이나 어머니를 모시고 참가하기도 했다.

이 동문은 또한 한국과 협력해 미국에서 탈북자 난민신청법 캠페인을 펼쳐 북한인권법을 통과시켰다.

2017년 박정희 대통령 탄신 100주년을 맞아 미주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회를 시작했다. “누가 뭐라고 해도 5천년의 가난을 벗게 해준 대통령입니다. 기념 우표를 비롯해 기념 사업이 많았는데 마침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두 취소했죠. 그래서 민간 차원에서 시작하게 된 겁니다.”

뜻이 맞는 몇 사람과 시작했지만 해마다 5.16과 11.14(박대통령 생일) 등 2번의 행사를 기본으로 하며 박정희 대통령을 추모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미 전역의 한인 인사들이 참가해 ‘박정희 역사 탐방’이라는 프로그램으로 박 대통령과 관련된 생가, 묘지, 기념관 등 18곳을 방문하는 행사를 6일에 걸쳐서 갖기도 했다.

그는 김대중, 김영삼 의원이 들어 높고 온갖 이권을 놓고 다투었던 정치권을 바로 앞에서 봤기 때문에 더욱 청렴하고 사심이 없었던 박 대통령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는 것을 증언하고 있다.

장병희 편집위원

청년처럼 사는 어르신 ... “나도 청어로 살고 싶다”

호민선(상대 59 · 하트랜드)

고등학생 시절, 함께 교회를 다녔던 친구인 김광진 목사(문리대 60)와는 80이 넘는 지금도 카톡으로 자주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데 최근 ‘나도 청어로 살고 싶다’라는 글을 퍼서 보내 주었다. 그 글을 읽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여기서 ‘청어’란 ‘청/년처럼 사는 어/르신’의 줄임말로 긍정적 열정과 미래 호기심에 가득찬, 80-90-100세가 되어도 청년처럼 사는 어르신들을 말하며 그는 몇분의 예를 들었다.

104세에 지금도 강의를 하고 신문 칼럼도 쓰는 김형석 교수님, 92세의 이길여 가천대학교 총장님(의대 57), 엄청난 기부 활동을 하고 계시는 94세의 신영균 배우님(치대 48), 90세의 나이에 세로토닌 문화를 이끄는 이시형 박사님, 89세에도 연기를 활발히 하시는 이순재 국민배우님(문리대 54) 등을 예로 들고 있다. 나는 개인적으로는 그분들을 모르지만 지면이나 방송으로 익히 이름을 들었기에 친밀감을 넘어 존경심을 가지고 있다. 특히 다섯분 중에 세 분이 서울대 선배들이라 무척 자랑스럽다.

100세 시대인데 ‘청어처럼 사는 분들’이 왜 위에 적은 분들 뿐이겠는가? 매달 ‘서울대 미주동창회보’를 받아 보면 우리 서울대 동문들 중에는 훌륭한 ‘청



호민선 동문 부부.

어’같은 분들이 많아서 매달 읽으면서 감동을 받으며 다음호를 기다리곤 한다. 이번 360호(2024년 5월호 1면)만해도 64년에 문리대에 입학한 세 동문의 해발 5545m 에베레스트 칼라파타르 정상 등반 기사를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전문 장비 없이 오를 수 있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을 80세 가까운 노장들이 정복했다는 것은 충격적일만큼 자랑스럽다.

코로나 사장까지 역임한 저의 상대 동기 하기주는 작년에 장편 대하소설 ‘목숨’(전 3권)을 출간했고 그 책을 선물로 받아 꽤 무거웠지만 미국까지 가지고 왔는데 마침 전립선 암으로 치유를 받는 동안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그 책을 단기간에 완독할 수 있었으며 읽으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다.

그 책의 해설을 쓴 소설가 고승철(상

대 후배로 신문 기자 출신 소설가)은 명작과 태작의 구분 기준은 독후 여운이 뇌리에 또렷이 남아, 또 읽고 싶은 작품도 명작의 요건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썼는데 ‘목숨’ 전3권을 다 읽고 나자마자 다시 읽어 보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드는 걸 보면 그 책은명작이라고 감히 추천하고 싶다.

세월호 참사 10주년인 금년 4월호 ‘한국소설’에 하기주는 단편소설 ‘손’을 게재했는데 세월호 참사를 배경으로 젊은 목숨들의 때묻지 않은 사랑을 그린 소설이었는데 몇번 반추하듯이 읽다보니 이 단편에도 ‘목숨’이라는 주제가 뚜렷하게 떠올랐다. ‘목숨’이란 주제는 그가 다루고자하는 엄청난 주제인 듯하다. 만 85세의 노장이 청년처럼 한국 소설가협회 회원으로 가입해 열심히 활동하면서 지금도 ‘붓과 창’이라는 임진왜란과 이순신을 주제로 한 소설을 쓰고 있다니 나는 하기주를 ‘청어 후보생’으로 추천하고 싶다.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제 353호(2023년 9월호 8페이지) 지부소식란에 소개했듯이 내가 속해있는 하트랜드 지부의 작년 가을 동창회 모임에 이재명(의대 59)과 내(상대 59)가 만 84세 최연장자로 참석했다. 임소연 회장(음대 91)이 우리 둘에게 특별 연주 순서를 부탁했고 통상 유명한 성악가나 기악 연주자가 출연하던 이곳 전통을 깨고 아마추어 음

악 애호가인 이재명이 이수인곡 ‘내 맘의 강물’을, 나는 드보르자크의 ‘Going Home’을 열심히 준비해서 불렀는데 우리 젊은 동문들로부터 돌다 열렬한 Standing Ovation을 받았다면 그 말을 믿으시겠는가?

나는 76세때 아내인 간호학과 64학번의 박연희(호연희)와 튀르키예에 1년동안 나가서 시리아 난민들을 섬기며 전도하고 건강하게 돌아왔으며, 오자마자 당시 아프가니스탄에서 사역하던 한 선교사의 간절한 요청으로 ‘Afghanistan: The Forbidden Harvest’라는 아프가니스탄 첫 선교사의 사역을 쓴 영어 책을 번역하느라고 몇달동안 끙끙거리다가 동료 선교사와 공역으로 완성했고(Covid로 지연되어 곧 출판할 예정), 치매 예방을 위해 2022년1월1일부터 지금까지 일기를 쓰고 있다. 딸의 요청으로 재작년 제 생일인 4월부터 작년 4월까지 영어로 매주 내 생애 중요한 순간 순간들을 써서 내 생애의 마지막 책으로 곧 나올 예정이다. 또 금년에도 전립선 암 치유 중이었지만 다민족 선교 훈련 학교에서 찬양 인도자로도 열심히 섬기고 있으니 건강을 회복하면서 여러가지 선한 일에 정진해 나간다면 나도 위에 있는 분들처럼 훌륭한 ‘청어 후보생’으로 후배들에게 기억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으로 주어진 삶을 더 열심히 살아가고 싶다.



이유성

(사대 57 · 서예가 · 생물학자)

서예가로 활동하는 뉴욕에 사는 이유성 동문이 서예에 관한 보내온 글을 보내왔다. 5월호에 이어 6월호에서 하편을 소개한다.

‘100 New York Calligraphers’(2015년)라는 책의 저자인 Dr. Cynthia Dantzig (Long Island University 명예교수)는 필자의 한글서예 작품에 매료되어 이를 토대로 한글서예를 연구하고 논문을 발표해 K-culture 한류의 동력 추진에 이바지한 바 있다. 그가 질문한 “서예와 Figure Skating은 여러 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들은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의 답으로 필자가 정리한 아이디어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필자 주: 필자는 서예경력 59여년, 빙상경력 13년)

서예와 Figure Skating과의 공통점은 (1) 다른 온도에서 동일한 매체를 사용하는 일종의 선(line)의 예술이다. (2) 둘 다 유려한 line dynamics, variety, rhythm, melody 등 기술적 가치와 예

서예와 피겨 스케이팅의 공통점은



필자의 한글서예 작품이 담긴 미국우표(US Postal Stamps by USPS). 서예작품이 우표 디자인으로 채택된 것은 처음이다. 작품명은 좌로부터 이광수님의 시 ‘붓한자루’(전통서예 궁서체); 사랑과 믿음(당대서예 추상서체); 예지의 빛(당대서예 추상서체)

술적 표현을 강조한다. (3)이 두 가지의 시연(performance)에 모두 열정적으로 자신의 정신과 영혼을 쏟아 혼신한다. (4)이 두 가지의 모든 흐르는 움직임(flowing movement)은 신체적으로 신경계통 및 근육계통에 의해 집중되고 섬세하게 제어된다. (5)시연자(performer)와 감상자(audience)는 서로를 즐겁고 행복하게 만든다.

그렇다면 서예와 Figure Skating의 차이점은 전자는 부드러운 동물 털로 만든 붓펜을 사용하여 먹물로 종이에 직선을 그리고, 후자는 단단한 금속 칼날

을 사용하여 얼음 위에 곡선을 그리는 것이다.

전통서예 및 당대서예 지난 100년 동안 서예발전의 변천상황은 4000년 동안보다도 엄청난 질적 또는 양적 변화를 가져왔다. 더구나 지난 세기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 전통서예의 종주국 지위도 흔들리며 당대서예(또는 현대서예)로의 추상화 작업을 채택질하여 오늘에 이른다. 현대 서예운동 중 하나는 서예를 단순히 읽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시각적인 측면에서 감상할 수 있는 예술(visual art) 형식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전통서예(TC, traditional calligraphy)와 당대서예(CC, contemporary calligraphy)의 비교

(1) TC는 지난 4000년 간의 전통과 규칙으로 작가들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들의 창의성이 제한되었다. CC는 대부분 전통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작가는 예술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기존 문체를 파괴하고 재구성하는 것이 허용되며 무한한 창의성을 향유한다.

(2) TC는 작가의 목표가 과거 유명했던 대가들의 서체에 영향을 받아 자신만의 스타일을 창조하는 것으로 더 보수적이고 엄격하다. CC의 작가들은 이전 스타일과 상관없이 우리 시대의 삶과 철학과 조화시키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CC는 TC보다 더 개방적이고 유연하다.

(3) TC의 작품은 그 대상이 문자이자, 메시지를 전달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읽을 수 있게 되어 있다. CC의 작품은 꼭 읽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로 시각적 형식으로 감상해야 하는 예술형식이므로 그 가치를 추상적인 형태로 고민한다.

일부 작가들은 완전히 추상적인 서예를 수행하는 ‘비문자(non-letter)’ 방향으로 나아갔다. Cc는 형식적인 어휘를 <9면으로 계속>

남가주 양민 동문 아들, 집에서 경찰 총격에 피살

정신질환 아들 병원 데려가 달라고 정신건강국에 연락했는데...

남가주 양민(공대 77) 동문의 아들 양용(40)씨가 지난 5월2일 LAPD 경찰의 총에 맞아 숨졌다. 양 동문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아들의 병원 이송을 위해 LA카운티 정신건강국에 연락했고 양 동문의 집에 온 정신건강국 직원은 아들이 병원 가기를 거부하자 911에 도움을 요청했다. 그런데 출동한 경찰이 집문을 연 뒤 그가 칼을 들고 있다는 이유로 총격을 가해 그를 사살했다.

남가주 서울대 동문들은 물론 지역 한인사회가 이에 분노해 경찰 총격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책임 경찰관에 대한 기소를 요구하고 있고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시민에 대한 경찰의 대응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LA한인회와 LA총영사관, 지역 언론 등 커뮤니티가 들끓자 LAPD는 지난 5월 16일 유튜브를 통해 911 신고 접수에서부터 당시 정황이 담긴 경찰의 바디캠 영상을 공개했다.

911 신고에서 LA카운티 정신평가팀 직원은 분명히 양씨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밝히고 “가족의 부탁을 받고 데리러 갔지만 양씨가 나와 부친에게 공격적”이라면서 경찰 지원을 요청했다.

이어지는 동영상에서는 첫 출동한 경관 2명이 양민 동문 및 정신건강국 직원과 양씨의 상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뒤 아파트로 올라가 “경찰이다. 문 열고 나오라”고 하자 양씨가 “싫다. 나는 당신을 초대하지 않았다”고 답하며 나오기를 거부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에 추가 지원 요청을 받고 7명의 경관이 더 출동한 가운데 수퍼바이저 경관이 양민 동문에게 “두가지 옵션이 있다. 그가 계속 거부하면 강제로 병원에 데려갈 방법이 없다. 그가 위험한 행동을 하면 주거 침입으로 강제 연행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다칠 수 있다.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고 말을 한 뒤 아파트로 올라가 양씨에 대한 설득을 다시 시도했다.

하지만 양씨는 나오기를 거부했고 세 번째 시도에서 경찰은 양민 동문에게 키를 받아 강제로 문을 열었다. 문이 열리자 거실에서 주방용 칼을 쥐고 있던 양씨가 놀라 뒷걸음을 쳤고 경찰은 집안에 들어가려다 양씨가 칼을 든 것을



이상강 미주동창회장이 아들을 잃는 비극을 당한 양민 동문을 위로하고 있다.



숨진 양용씨를 위한 고펀드미 웹사이트 캡처.

강제 진입 후 칼 든 아들 본 경관 문 열고 8초만에 총격 즉사시켜 “환자를 범죄자로” 지역 사회 분노 동문들도 청원·모금 운동 전개

보고 급히 물러나며 총을 꺼냈다. 경찰은 “칼을 버려”라고 3번 외쳤고 거실 안쪽에 있던 양용씨가 주춤거리며 서너발 짝을 다가오자 총을 발포했다. 경찰이 문을 연지 단 8초만에 벌어진 일이었다.

사건 발생 당시 경찰은 용의자가 칼을 들고 경찰에게 다가왔기 때문에 총을 쏘았다고 발표했는데 거실 안쪽에 있던 양용씨가 겁을 먹고 주춤주춤 다가온 건 네걸음이었고 그마저 문 밖에 있던 경찰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총격 발생 당시 비살상무기인 빈백(bean

bag)을 든 경관이 바로 뒤에 있었음에도 빈백이 아닌 실탄을 발사했고 그것도 가슴에 2발, 복부에 1발을 쏘 양씨를 현장에서 즉사하게 했다.

LAPD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최대 1년까지도 걸리는 경찰 총격 수사 특성상 지금은 매우 초기 단계”라며 “추가 증거에 대해 수집, 분석, 평가를 완료하기 전까지 경관의 규정 준수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날벼락이었다. 양 동문의 아들은 오래전부터 양극성 정신장애로 고통을 겪었

으나 지난 3년 동안은 약에만 의존하지 않고 요가, 명상, 기도를 하고 규칙적으로 테니스를 치며 상태가 호전되고 있었다.

오래 사귀던 여자친구와 함께 살며 새로 음악도 공부하고 있었는데 사건 발생 전날 저녁식사를 함께 한 뒤 오늘은 부모님 집에서 자고 싶다고 해 하룻밤 머물다가 일을 당한 것이다.

양 동문은 “불안증세를 보이는 아들에게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병원에 데려가서 치료를 받게 해달라고 전문가에게 연락했다. 경찰이 왔고 그들이 내 아들을 죽이러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웃으며 친절하게 대한 내 자신이 너무 바보같다”며 “그토록 오랫동안 본인의 아픔과 싸우며 나이 40에 접어들며 이제 좀 서로에게 평화가 찾아오려나 했는데 경찰 총격에 아들을 떠나보냈다”며 후회와 분노로 말을 잇지 못했다.

지난 5월 9일 열린 유가족 기자회견에는 미주동창회 이상강 회장과 임원진들이 참석해 양민 동문의 비통함을 위로하며 아들의 억울한 죽음을 밝히겠다는 양 동문을 지지하며 돕기로 했다. 남가주 동문들은 온라인 청원 사이트 ‘체인지(change.org)’에 정신질환자에 대한 경찰의 총기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청원 운동을 시작했고 긴싸움에 나설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모금 사이트 고펀드미(<https://gofund.me/f03ee1b7>)에 계좌를 오픈해 모금 활동을 하고 있다. 이상강 회장은 미주동창회 이름으로 1000달러를 지원했으며 개인적으로도 500달러를 기부했다.

정신질환자가 경찰 총격에 사망하는 비극이 미국 각지에서 종종 벌어지고 있는데 치료용호센터(TAC) 자료에 따르면, 정신질환자가 법집행기관에 의해 경찰에 의한 정신질환자의 사망 확률은 일반인 보다 16배나 높다.

정신과 의사인 한 동문은 “가족들이 정신건강국에 도움을 요청할 경우는 위급한 상황이 대부분”이라며 “대응이 안 되니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고 경찰이 개입되면 환자가 다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인들이 뭉쳐 개선을 요구하지 않으면 이런 비극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8면에서 계속>

연상시키지만 전혀 의미 있는 글은 아니다. 많은 서양 작가들이 서양 추상화를 배경으로 이러한 비문자 서예(non-letter calligraphy)를 시도한다. 그들은 형태가 순전히 추상적인 모양으로 기능하도록 완전히 읽을 수 없게 만들어진 글자나 문자를 사용하고 있다.

TC 분야는 오랜 역사를 갖는 보수적

인 예술이고, CC 분야는 현대적인 예술이므로 CC가 더 좋은 서예의 장르일까? 만일 CC가 더 좋은 경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더 많아지더라도 TC가 CC로 대체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대체(代置)가 아니라, 추가(追加)일 것이며, 이 두가지는 병존(並存)할 것이다.

Cc 분야는 아직도 실험적이며, 초보자

가 시작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초보자에게는 보통 권장하지 않는다.

붓글씨 또는 기초적인 줄긋기를 연습하려면 동아시아의 문자 언어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서예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여기서 한글서예가 그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한국은 21세기 세계에서 떠오르는 국가이며, 한글은 K-culture 중

에서도 핵심 위치에 있게 되며, 지금까지 동양서예가 중국문화의 강력한 영향을 받은 것처럼, 한글서예의 관심도 동반 상승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website는 지난 3월 9일 뉴욕에서 있었던 서예전으로 한글과 함께 빛을 담은 한글서예의 미래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 <https://www.youtube.com/watch?app=desktop...>

AI가 인간보다 주식 투자를 더 잘 할 수 있을까?



윤기향
(법대 65)

오픈AI가 2022년 11월에 개발하여 출시한 챗GPT(GPT-3.5)가 산업혁명에 버금가는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

챗GPT는 생성형 대형언어모델로서 Generative Pre-trained Transformer를 뜻한다. 생성형 AI(Generative AI)는 입력된 정보를 이용해서 새롭고 창의적인 내용을 생성해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생성형 AI는 논리력과 판단력과 상상력을 구비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성형 AI는 생각하는 인간의 지능에 보다 가깝게 접근했다고 볼 수 있다. 생성형 AI로 무장한 로봇이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cogito, ergo sum)라는 데카르트의 명제를 선언할 날도 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픈AI가 2023년 3월 GPT-3.5를 업데이트해서 새로 출시한 GPT-4 모델은 이전 버전보다 응답 오류 가능성이 적고 많은 표준화된 시험에서 평균적인 인간보다 더 좋은 성적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변호사시험과 SAT시험에서 생성형 GPT-4는 90퍼센타일(percentile)을 기록했는데, 이는 전체 응시자의 90%가 생성형 AI보다 성적이 낮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지능은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AI의 지능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으로 보면 생성형 AI가 주식 투자에 있어서도 곧 인간을 따라잡을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몇 가지 이유로 이러한 주장에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다.

먼저 AI가 미래예측을 하는 데에는 태생적으로 적합치가 않다. 예측형 AI는 물론이고 챗GPT와 같은 생성형 AI도 입력된 정보를 기초로 한다. AI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다량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유용한 정보를 학습한 후 그로부터 얻은 정보에 입각한 추론을 내리는 시스템이다. 컴퓨터 공학에서 사용되는 용어 가운데 GIGO라는 말이 있다. 그것은 ‘Garbage-In, Garbage-Out’을 의미한다. 엉터리 정보를 입력하면 엉터리 결과가 나온다는 의미이다. 생성형 AI는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GIGO 현상이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장치가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험루시네이션

(hallucination)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 험루시네이션은 그럴듯한 거짓 답변을 일컬으며 AI 모델이 정확하지 않거나 사실이 아닌 조작된 정보를 생성해내는 현상을 말한다.

AI가 주식 투자를 할 경우 주어진 과거의 정보를 사용하여 주가를 예측하는 알고리즘을 사용하는데 이는 과거의 실적을 기반으로 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주식 예측기법과 별 다를 것이 없다. 투자이론에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근본적으로 다른 두



A과거 실적 기반으로 미래 주가 예측 금융위기 · 코로나 같은 불확실성 생기면 과거 정보만으론 시장 대응하기 힘들어

가지 기법이 있다. 하나는 기본적 분석(fundamental analysis)이고 다른 하나는 기술적 분석(technical analysis)이다. 기술적 분석이란 주로 주가와 거래량에 관한 과거의 추세를 분석하여 고평가 또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찾으려는 분석 기법이다. 이에 반해 기본적 분석은 기업의 현재와 장래의 수익성, 성장성 등 시장기본요소 (market fundamentals)에 관한 정보를 사용하여 주가의 적정한 수준을 평가하려는 분석 기법이다. 경제학자들은 기술적 분석의 유용성에 회의적이 그 한계를 잘 알고 있다. 과거의 실적뿐만 아니라 장래에 일어날 수 있는 수많은 불확실성도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친다. AI 투자 모델은 미래에 일어나는 불확실성을 정보망에 담을 수 없으며 따라서 기본적 분석에서 서투를 수밖에 없다.

인간은 물론 생성형 AI도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러시아의 문호 톨스토이도 “신은 인간이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말한 적이 있다. 그는 성경에 나온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보인다: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노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 하리로다” (전도서 8:17). 이 성경 구절은 AI에게도 그대로 통하는 진리라고 볼 수 있다.

경제학자들은 시장효율성가설을 믿는다. 일반적으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새로운 정보가 시장에 도달하면 시장 참여자들은 그러한 정보를 근거로 주식이나 채권의 시장가치를 평가한다. 이

은 보다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존하는 증권시장 가운데 미국의 주식시장이 가장 효율적인 시장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의 주식시장의 경우, 우선 시장 규모가 작다. 한국의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이 미국 애플사의 시가총액보다 작다. 한국의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를 모두 합한 한국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은 2,655조원 (2024.5.15. 현재)인데 비해 미국 애플의 시가총액은 같은 날 3,883조원이었다. 뉴욕증권거래소와 나스닥을 합한 미국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은 7경2,125조원으로서 한국 주식시장 전체의 시가총액의 27배에 달한다. 그 반면 미국의 상장기업 수는 5,637개로 한국의 상장기업 수 2,692개보다 두 배 조금 넘는다. 이는 한국의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의 상당수가 잔챙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한탕을 노리는 좀비기업들이 그만큼 많다는 것을 말해준다. 이런 상황에서는 작전세력이 개입해서 좀비기업들의 주가를 충분히 조작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작전세력의 실적은 시장을 앞지를 수 있다. 이와 같이 주식시장이 비효율적일 경우, 작전 세력들은 시장 평균 수익률을 넘는 수익을 올릴 수 있으며 AI 투자모델은 그들보다 더 잘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래의 주식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 지는 투자전문가들이 주식을 얼마나 잘 고르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흥미진진한 실험을 했다. 그 실험은 여덟 명의 투자전문가들에게 연초에 각각 다섯 개의 주식을 선정하도록 했다.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주식의 실적을 캘리포니아주 발레호 시의 동물원에 살고 있는, 린(Jolyn)이라는 이름을 가진 오랑우탄이 골라잡은 다섯 개의 주식의 실적과 비교해 보았다. 놀랍게도 린이 골라잡은 주식의 연말 실적은 투자전문가들이 선정한 주식에 뒤지지 않았다.

한편 시장효율성가설에 도전하려는 노력도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저명한 경제학자, 수학자, 통계학자, 물리학자들이 고차원의 수학을 이용해서 시장을 앞서서 수익을 올리는 투자모형을 만들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러나 그들은 크게 성공하지 못했다.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가 롱텀캐피탈 투자회사(Long-Term Capital Management, LTCM)이다. LTCM은 1994년 투자이론으로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저명한 경제학자들인 솔즈(Myron Scholes)와 머튼(Robert Merton) 등에 의해서 설립되었다. LTCM은 처음에는 대성공을 거두었다. 첫 해에 21%, 둘째 해에는 43%, 그리고 셋째 해에는 41%의 수익률을

(11면으로 계속)

와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는 질문은 새로운 정보가 시장에 도달했을 때 시장에서 결정되는 주식가격은 그러한 정보를 얼마나 신속히, 정확히, 그리고 완전히 반영하는가 하는 점이다. 만약 새로운 정보가 신속히 그리고 정확히 주식 가격에 반영될 경우 그러한 시장은 ‘효율적’이라고 한다. 만약 시장이 효율적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시장가격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기본요소에 관한 모든 정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주가에 대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정보를 이용해서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는 것은 부질없는 노력이라고 보는 것이 시장효율성가설의 요지이다. AI가 아무리 많은 과거의 정보를 이용해서 주가를 예측한다고 해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문제는 미국의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각국의 주식시장이 이러한 의미에서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시장의 투명성이 높을수록, 내부거래와 같은 불공정 거래에 대한 규제가 철저히 될수록, 정보의 흐름이 자유로울수록, 그리고 시장규모가 클수록 그러한 시장

젊은 유망 연주자 선발해 연주 기회 주고 장학금까지

북가주 서울음대 동문 음악회 5년 만에 재개

북가주 서울 음대 동문회(회장 김진희)가 팬데믹으로 중단됐던 동문 음악회를 5년 만에 다시 개최했다.

지난 4월28일 오후 3시 서부의 카네기홀이라 불리는 샌프란시스코의 허브스트 시어터에서 열린 음악회에는 미국 거주 젊은 한인 음악가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Korean Young Artist competition을 통해 선발한 4명의 유망 연주자들이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을 선보였다. 샌프란시스코 오페라에서 활약 중인 바리톤 한종원 동문과 피아니스트 서혜원 동문이 게스트로 참여해 후배들의 무대를 더욱 빛나게 했다.

김진희 음대 동문회장은 “이번 공연을 주최하면서 한인 젊은 음악도들의 실력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며 “팬데믹

으로 인해 젊은 연주자들이 매우 힘든 시기를 보내야 했는데 동문회에서 이렇게 연주 기회를 마련해주고 장학금도 주면서 젊은 연주자들을 격려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북가주 서울음대 동문회는 그동안 리처드 오닐을 비롯해 서예리, 강주원 등 실력있는 음악가들을 초청해 음악회를 열어왔고 이번 컴퍼티션 우승자 시리즈를 통해 다시 한번 지역사회에 클래식 음악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선사했다.

이번 공연에는 컴퍼티션 우승자로 바이올리니스트 김은하, 제이슨 문, 피아니스트 박세현, 첼리스트 알렉산드리아 김 등이 출연해 포레, 생상스, 쇼팽, 슈만의 서정적이고 매혹적인 작품들을 연주했다.



북가주 서울음대 동문회가 주최한 ‘코리안 영 아티스트 컴퍼티션’ 우승자들 콘서트에 참여한 연주자들.

휴스턴 지부, 장애우 포함 대학 진학생 13명에 장학금

지난 5월 14일 저녁 서울대 미주동창회 휴스턴 지부는 휴스턴의 서울가든 대연회실에서 제34회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가졌다. 장애우 한 명을 포함한 13명의 대학 진학생에게 장학금을 수여했다.

최인숙 장학위원장을 비롯한 장학위원들이 지난 3월초 13명의 장학생 선발을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이날 이호성 동창회 이사장은 축사에서 대학 가서도 자신감을 갖고 최선을 다해 멋진 성과를 만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고 김정환 지부 회장은 자신을 발견함으로써 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으며, 더 많은 기회가 기다리고 있다는 내용의 축사를 했다.

올해는 특히 2023년 말 미주총동창회에서 보내온 지원금으로 김민영 학생에게 미주동창회장 장학금을 수여했다.

글=김정환(공대 80 · 지부 회장)



휴스턴 지부 동문들이 지난 5월14일 장학금 수여식 행사를 하며 장학생들과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10면에서 계속>

올렸으나 넷째 해에는 46억 달러의 손실을 입었다. 1997년의 아시아 금융 위기와 1998년의 러시아 국제위기를 예측하지 못한 것이 패착의 원인이었다. LTCM은 그 이후 계속 부진하다가 2000년에 청산 절차에 들어갔다.

또 다른 케이스로 얼마 전 타계한 미국의 수학자 사이먼스(James Simons)가 설립한 Renaissance Technologies를 들 수 있다. 그는 수학, 통계학 등을 활용해 주가 흐름을 예측하는 ‘퀀트(Quant) 투자법’을 개발해 지난 30여 년 동안 높은 수익률을 올렸지만 코로나 위기를 예측하지 못해 큰 손실을 입었다. 장래

의 예측에 관한 한 생성형 AI도 별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시장효율성은 장기적으로 미래의 유망한 주식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예측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주가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정보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성장 잠재력이 높은 회사를 찾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회사의 주식은 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한 주식에 대한 투자는 시장효율성과는 관계없이 매우 현명한 투자가 될 것이다. 경제는 장기적으로 볼 때 꾸준히 성장한다. 이러한 장기적인 성장 추세에 발맞추

어 주가도 장기적으로는 성장곡선을 그린다. NVidia, 애플, 테슬라 등 ‘매그니피센트 세븐’ 주식들이 그 대표적인 주식들이다. 그러나 경제가 언제나 평탄하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는 장기적인 성장곡선을 그려가면서도 단기적으로는 경기순환을 반복한다. 주가도 이러한 경기순환을 반영하여 장기적인 추세를 타면서도 단기적으로는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내린다.

그러나 주가의 변동은 경기변동보다 훨씬 급격하여 단기적인 변동장세 속에서 순간마다 널뛰기를 한다. 실패한 투자자들은 대개 이러한 널뛰기에서 너무 높이 뛰려다가 떨어지는 사람들이다.

시장효율성가설은 AI 투자모형을 포함해서 소위 투자고수들이 시장을 앞설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구이며 결국에는 시장의 평균치밖에 건지지 못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만약 생성형 AI가 인간보다 주식 투자를 더 잘하는 날이 온다면 경제이론과 투자이론의 근간이 흔들리는 대변혁이 될 것이며 증권회사와 투자회사들, 그리고 투자분석가들은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다.

저서: Using Poetry for Economic Analysis (Cambridge Scholars Publishing); 시가 있는 경제학 (김영사); 현대거시경제론 (법문사); 증권론의 논리, 투자의 예술 (씨앗출판사)



미션베이파크에서 야유회를 즐기는 샌디에고 동문들.



자녀들과 함께 게임을 하는 워싱턴DC 지부 동문.



계란판에 골프공 던지기 게임을 하는 샌디에고 동문들.

야유회 · 골프대회 봄 나들이 동문 행사 풍성

샌디에고

“계란판에 골프공 던져 넣기 쉽지 않네”

오월 초순의 토요일,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 아직 조금 쌀쌀한 날씨였지만, 푸른 잔디밭과 바다가 만나는 미션베이 파크에서 45명의 동문 가족이 모여 샌디에고 서울대 동문회 봄 야유회를 가졌다.

10시 반에 만나 커피와 베이글로 간단한 아침 식사를 하며 오랜만에 만난 얼굴들과 인사를 나누고 나서 미션베이 남쪽 해안길을 따라 45분 정도 산책을 했다. 4월부터 5월 초까지 노란색의 야생화가 만개를 하는 곳인데, 야유회날에는 꽃들이 많이 져서 살짝 아쉬웠지만, 삼삼오오 얘기를 나누며 걷는 길은 즐거움으로 가득했다.

불고기, 해물전, 코다리무침 등으로 푸짐하게 차려진 점심 식사를 하고, 레크

리에이션으로 계란판에 골프공 던져 넣기 게임을 했다. 3개의 공을 던져 2개를 집어넣으면 스타벅스 상품권을 주기로 했는데, 골프에 진심인 동문들도 손으로 골프공을 다루는 건 익숙하지 않아 서인지 제대로 계란판에 들어가지 않고 튀어 나오는 공들을 보며 한숨 짓기도 하고 웃기도 하는 동심으로 돌아간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동문들의 학년을 10년 단위로 구분해 보니, 50년대 학번부터 90년대 학번까지 각 10년의 기수마다 거의 같은 수의 동문 가족이 모였다. 선배 후배 동문들이 다같이 어울리는 샌디에고 동문회의 모습이 다시 한번 보여준 야유회여서 더욱 좋았다.



샌디에고 동문들이 지난 5월11일 미션베이파크에서 야유회를 하며 기념촬영을 했다.

다음 동문회 행사는 6월 22일 골프대 회, 7월 27일 별보기 캠핑이 예정되어

있다. 다시 만날 그 날이 기다려진다.
글 = 송오석(공대 91 · 지부 회장)

워싱턴 DC

봄 피크닉 동문 · 가족 90여명 참석



워싱턴 DC 동창회가 지난 5월 11일 오전 11시 메릴랜드에 있는 세네카 크릭 주립공원에서 봄 피크닉을 했다. 동문과 가족 90여명이 참석해 맛있는 식사와 함께 다양한 게임을 즐겼다. 풍성하고 즐거운 피크닉이었다. 다함께 모여 단체사진을 촬영하는 동문들.

남가주

골프대회 100여명 참석

최했다. 이날 동문 등 100여 명이 참석해 동창회 운영 기금을 모았다. 샷건 방식으로 열린 전체 토너먼트에 앞서 참가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남가주 총동창회(회장 임춘택)가 지난 4월27일 브룩사이드 골프클럽에서 연례 골프 토너먼트를 개





골프대회를 앞두고 스윙 연습을 하며 담소를 나누는 필라델피아 지부 동문들.



시카고 동창회 조규승 회장이 그로스 일등은 물론 롱기와 니어를 모두 가져간 이재환 동문에게 트로피를 주고 있다.



야우회를 즐기는 워싱턴DC 동문들. 맨 왼쪽이 오인환 전 미주 동창회장.

푸른 자연 벗삼아 ‘하하호호’ 즐거운 게임

시카고

날씨 좋고 스윙 멋지고 뒷풀이 친목도 ‘짱’

지난 5월 4일 토요일 시카고 동창회는 늦봄의 따스한 햇살 아래 시카고 근교 힐데일 골프장에서 춘계 골프대회를 개최했다. 최근 골프를 즐기던 선배님들의 감소로 대회 개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조규승 회장님(문리 72)과 임원들의 노력으로 총 20명의 동문들이 참여해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참가자들은 다섯개 조로 나뉘어 그동안 연습해온 실력을 맘껏 발휘하며 즐거운 경기를 펼쳤다. 시카고의 변덕스러운 날씨와 달리 이날은 맑고 화창한 날씨가 더해져 더욱 쾌적한 라운딩을 즐길 수 있었다.

12시에 티오프를 시작해 오후 5시경 라운딩을 마친 참가자들은 뒷풀이 장소로 한인 경영 사쿠라 스시로 옮겨 친목을 다



지난 5월 4일 힐데일 골프장에서 열린 시카고 동창회 골프대회에 참가한 동문들.

졌다. 그로스, 네트, 롱기스트, 니어 등의 부문에서 우승한 분들에게는 상품이 수여되었으며, 골프대회를 주관한 김훈태 동문(사회대 84)이 준비한 풍성한 선물 덕분에 참가자들은 모두 기분 좋은 추억

을 선물로 받았다. 이번 춘계 골프대회는 단순한 스포츠 경기 이상의 의미를 지닌 자리였다. 오랜 만에 만난 동문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건강과 안부를 묻고, 옛

추억을 되새기며 깊은 우정을 다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시카고 동창회는 앞으로도 이러한 동문 간의 교류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글 = 이준수(공대 76)

필라델피아

젊은피 95학번 동문 귀여움 독차지

필라델피아 동창회가 지난 5월13일 벅스클럽에서 동문과 배우자 20명 가까이 참석한 가운데 춘계 골프대회를 가졌다. 전날 내린 비로 인해 다소 쌀쌀하고 흐린 날씨였지만 부지런한 몇몇 동문들은 일찍 등록을 마치고 연습 스윙에 여념이 없었고, 한쪽에서는 오랜만의 만남을 반가워하며 인사를 나누고 이야기꽃을 피웠다.

오전 11시에 Tee Off 했다. 점심인 김밥이 조금 늦게 도착해 이홍일 동문이 카트에 김밥을 싣고, 먼저 떠난 팀들에게 손수 배달을 하는 해프닝도 있었다.

정홍택, 김규화, 이홍일, 정덕준, 이종태, 전무식, 황선희, 주기목, 최유섭, 최정웅, 조화연, 빈종훈, 전방남 등 남자 13명, 정경애, 박선수, 김금자, 구진 등 여자 4명이 남자 네 팀, 여자 한 팀을 이루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특히 이번 대회를 통해 동창회에 처음



필라델피아 동문들이 지난 5월13일 벅스클럽에서 열린 골프대회를 앞두고 기념촬영을 했다.

나온 빈종훈 동문(공대 항공과 95) 부부가 젊은 피로 선배들의 귀여움을 독차지했다. 오후에 해가 나면서 기온도 올라가 날씨도 원활한 대회 진행을 도왔

다. 대회가 끝난 후에는 다같이 Doylestown에 위치한 Omiza 식당에서 저녁 식사를 나누며 간단한 시상식을 가졌다.

이번 대회 결과는 다음과 같다. 1등 최정웅, 2등 주기목, 3등 전무식, 장타상 최유섭, 근접상 전방남, 여자부 우승: 정경애. 글 = 심희진(음대 90 · 지부 회장)



서울 광장시장 먹자골목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앉아 김밥, 떡볶이 등을 먹고 있다. 외국인들 관광코스로 성공.



부산의 감천 문화마을 달동네 판자촌에 색깔을 입혀 관광지로 성공한 사례. 촌스러운 색깔들이 홍보로 먹혔다.

아! 대한민국, 호텔 앞 청계천엔 붕어·잉어 노닐고

김인종 동문의 한국 방문기

오랜만에 한국에 갔다. 미국에서 태어나 나이 30이 되도록 아버지의 나라를 한 번도 가 본적이 없는 아들이 어느날 '코리아를 보고 싶다'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아들은 스스로 아메리칸으로 인식하면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정립되지 않았었고, 가족들이 함께 몇주간씩 시간을 내어 한국을 방문할 여유도 없었다. 무엇보다도 애비가 아들에게 할아버지의 나라, 조국을 알려주려 했던 절실함이 없었으므로, 그 게으름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겠다. 그리고 인터넷과 줌으로만 소통하며 일하던 서울의 본사 임직원들을 만나는 것도 이번 조국 방문의 주목적이었다 (조국이라고 하니 자주 요즘 회자되는 유명인의 이름과 겹쳐 '고국'이라고 써야겠다).

아주 먼 나라

한국행 비행기 - 아, 고국은 멀구나! 로스엔젤레스에서 탑승해 12시간을 좁은 의자에 꾸겨 앉아 가며 여러 번 중얼거린 푸념이었다.

멕시코들은 좋겠다. 몇시간 차를 몰면 고향땅에 도착하니 - 옆자리 아내의 말이다.

비행기 안에서 식사를 그 유명한 매콤한 비빔밥으로 기대했는데 다른 메뉴로 나왔다. 항공사에 미안한 말이지만 맛에 실망했다.

인천공항, 시설이 세계적인 수준이라는데 서둘러 공항을 나오느라 제대로 보지를 못했다. 3주 후에 로스엔젤레스로 출국하면서 인천공항에 일찍 도착해 구석구석 돌아보며 식사하며, 쇼핑하며 명실공히 '세계 최고'라는 평점을 내렸다. 그리고 그 평점은 미국 LA 국제공항에 도착해 제반 수속을 밟으며 공항을 빠져나가는 원시적인 과정에서 확신으로 변했다.

첫날

인천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서울로 들어와 청계천에 있는 한 호텔에 짐을 풀었다. 이틀 후에 전국 관광투어 버스를 타는 장소가 인근에 있기에 이 호텔로 정했다. 호텔 카운터의 직원들은 진정으로 친절하고 빠르다. 무표정하고 여유만만한 미국의 호텔 직원들과는 차

원이 다르다.

한국인의 '빨리빨리' 심성이 급하고 예의없는 문화로 지목되고 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 '빨리빨리' 문화가 유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며 좁은 땅덩어리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살아가며 국가를 성장시킨 원동력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관광사에서 업무차 뒷 줄에 서있던 사람도 간단한 업무이면 관광공사 직원이

쉬고 있는 손으로 신속히 처리해 보내면서 당장 앞에 선 사람의 업무도 동시에 처리해 주는 유연함, 그것을 묵묵히 받아 들이는 줄을 선 사람들. 서울 시내 건널목에서 그 많은 차들과 사람들이 서로 자기 차례를 주장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통행하는 모습들.



한석규, 심은하가 주연해 공전의 히트를 기록했다는 8월의 크리스마스, 영화에서 한석규가 사진관 주인으로 나온다는 초원사진관을 관광코스로 개발.

나같은 매너 있는 미국 운전자나 보행자들, 내 권리를 우선시하는 미국인들에게는 믿을 수 없을만큼 신기한 무질서 속의 질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들의 세대가 군대에서 선착순 빵빵이를 돌며 체득한 '빨리빨리'가 이루어낸 위대한 업적들이다.

호텔 앞을 흐르는 청계천을 걸었다.

지난번에 보이지 않던 붕어, 잉어들도 물 속에서 노닐고 있다. 조깅, 바이킹, 산책하는 사람들이 그들만의 삶을 즐기는 모습이 신선하다. 청계천을 걸을 때마다 어떻게 도시 한복판에 이런 물길을 만들 생각을 하고 실행에 옮겼는지 한국인의 비상한 아이디어와 그 빨리빨리 추진력에 감탄을 한다.

시장의 나라

첫날 첫 임무로 호텔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광장시장의 먹자골목을 찾아갔다. 국수, 순대, 호떡, 김밥, 떡볶이, 짜배기 튀김, 생선회... 스낵 음식을 전문으로 하는 간이 식당들이 시장내에 줄지어 있다. 외국에서 온 젊은 관광객들도 이 코스는 필수 코스인지 줄을 서서 먹을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음식 맛보다는 분위기에 젖어서 돌아다니며 이것 저것 먹어 본다. 정신차리고 보면 당뇨, 혈압, 비만 환자들이 먹을 만한 음식들은 거의 없다. 옛날 어린 시절 길거리나 시장 음식들, 그리고 그 식당들을 이렇게 보존해 먹거리 문화로 만들어낸 것도 한국인의 기발한 창조성이다.

여행중에 한국의 가난한 시절을 이런 관광 상품으로 미화시킨 곳들도 방문했다. 부산의 한 달동네(판자촌)는 철거를 반대하며 버티면서 온 동네가 벽에 색깔을 해서 관광마을로 마케팅을 했다. '감천 문화마을'로서 부산의 산토리, 마추피추 등으로 홍보를 하며 관광객 유치에 성공을 했고, 여러 지방자치체에서 이를흉내내며 비슷한 마을들을 만들어 관광지로 내세우고 있다.

한때 고층 빌딩 백화점과 최신식 쇼핑 상가에 밀려 개발이나 철거 위기에 있던 동대문 시장, 남대문 시장등의 재래시장들도 서민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TV 명인이라는 프로그램에 소개된 다음날 찾아간 시장 골목의 춘천냉면, 아침부터 줄이 늘어섰다. 맛은 그냥 냉면 맛.



모든 관광명소는 먹거리로부터 시작한다. 수덕사 입구의 산채비빔밥 식당.

어디든 데려가는 지하철 · 시장 먹자골목 ‘놀라워’

상권으로 보존이 되면서 한국의 문화 관광 명소들로 자리잡았다.

술 취한 나라

아침에 일어나 아내와 아들이 좋아하는 감자탕 집을 찾아 종로 쪽으로 갔다.

일찌감치 문을 연 인사동 입구의 감자탕 전문집에 들어갔다. 맛과 가격에 모두 만족. LA 쪽의 한국식당들이 요즘 인플레이션으로 값이 두배이상 오른 것에 비하면 서울의 음식값은 착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옆자리의 젊은이들 3명이 벌써 3병째 소주를 까며 시끄럽다. 대학생들로 보이는데 이른 아침부터 웬 일인가. 그후로 여행도중 술취한 대한민국을 적라라하게 볼수 있었다. 젊은 여자들끼리 앉아서 소주를 반주삼아 식사하는 모습은 당연하고 자연스런 한국의 풍광이다.

여자들의 술먹는 문화는 한국 남성들이 오래전 부터 여자들에게 강요한 술집 문화에서 비롯돼, TV, 영화등에서 멋진 여자 주인공들의 술취한 모습을 낭만적인 모습으로 관객들을 세뇌하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한국의 술문화로 자리잡았다. 의외로 담배를 피는 사람들도 많다.

나도 미국으로 이민을 가지 않고 고국 땅에 남았더라면 저 사람들과 함께 취해서 돌아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한국의 거리를 다니다 보면 한 집 건너 식당이 있지않나 싶을 정도로 식당이 많다. 다 장사가 될까 걱정이 될 정도이다. 그만큼 입맛대로 골라서 먹을 것, 마실 것이 넘쳐나는 나라이다.

호텔에서 틀어 놓은 TV방송들도 ‘먹



지하철의 한국인들. 서로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져 있다.

는 프로그램’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 미주한인의 중심 거주지역의 하나인 남가주에 한국식당들이 많다고 하지만 서울거리는 정규식당, 시장 식당들은 물론 편의점인 이마트, GS 25, 7 -11 등도 간이식당 역할을 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그리고 이 모든 식당에서 술들을 파니 1인당 술 소비량이 OECD 30개국 중에서 1위, 그리고 전세계적으로는 슬로베니아에 이어 세계 2위의 국가(KBS 보도)가 되고도 남음직하다.

지하철의 나라

대학시절 수원에 캠퍼스가 있던 서울 농대(요즘은 농생대)를 통학할 때 지하철을 타고 다녔다.

수원에서 수업이 끝나면 지하철을 타고 종로 2가에서 내려 무교동과 종

로, 명동을 다니며 음주가무를 즐겼다. 공부도 물론 조금씩 하면서.

그 지하철을 40년만에 다시 타보니 감회가 새로웠다. 지하철 승차차시 하염없이 걸어가는 지하상가들. 출구를 찾아 이 계단, 저 계단을 헤매는 어리둥절함. 공항에서 만난 서울치대 졸업 LA 치과의사 친구 부부는 교통카드 스캔하면서 지하철 출구에서 나갈 때마다 철컹철컹 잠겨서 거의 트라우마 상태였단다. 다시 익숙해질만 한니까 돌아오는 날이 됐다.

이 지하철을 타니 서울 어디든 방방곡곡을 다닐 수 있는 것에 감탄이 나온다. 남가주에서는 전혀 누릴 수 없는 최첨단 현대문명의 위력이다. 뉴욕에서도 이같이 편리하고 안전한 지하철 시스템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전화 시그널이 뜨고 인터넷이 된다니, 떠났던 미국이 밋살스럽다. LA의 지하철은 커녕 인근

의 산에만 가도 먹통 불통이 되는 핸드폰 시그널이 한국에서는 안터지는 곳이 없으니 말이다. 아아 대한민국, 고국 찬가가 안 나올 수가 없다. 외국인들이 왜 한국에 열광하는지 알만하다. 미국 촌놈이 정신이 깨어난다. ‘아, 한국이 미국을 넘어섰구나’

다만 총포의 무력과 달러의 자금력에서 밀리고 있을 뿐,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생활구조 시스템을 한국만큼 잘 해 놓은 나라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만 그 시스템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삶이 과연 행복한지는 여행 내내 의문이었다.

옛날 대학시절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는 역무원, 지하철 안내원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무인시대이다. 상점들도 점원이 없는 무인상점에서 기계를 상대로 결제를 끝내고 나온다.

호텔에서 묵은 빨래들을 모아 동네의 세탁장을 갔더니 무인세탁장이다. 환한 대낮에 때도독이 날뛰는 미국 대도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시스템이다. 다시 한번 ‘한국이 미국보다 앞서 있구나’를 인정한다. 도덕성, 준법정신, 양심을 지키는 인간의 정신세계 면에서도. 다만 이 앞서간 문화권에서 한국인이 나같은 노란 미국인보다 행복한지는 알 수가 없었다.

지하철을 타고 다니며 그들 한국인에게서 받은 인상은 최첨단 시스템 속에서의 무언가 제한된 삶의 모습이 었다.

다시 이곳에서 살 수 있을까. 떠나온 나라에 살게 된다면?

관광버스를 타고 한국을 일주일간 돌며 이 망상을 계속해 보았다. 망상 속의 한국 일주여행 - 서해로 떠나며 그 첫 기착지를 군산에서 시작했다.

(다음호에 계속)



박무중
(문리대 언어학과 66)

서울대 미주 동창회 회원 여러분,
매우 반갑습니다. 참으로 우연한 기회
가 와서 이 글을 쓰게 되어 기쁩니다.
제가 서울고 18회(1966년 졸업)인데 동
기 중에 University of Rhode Island의
Civil and Environment Engineering 교
수인 이강원 박사가 신 편집장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현재 KAIST에 1년 간 초빙 교수로 와
있는 이 박사가 제가 2020년 12월에 매
일 클래식과 팝송을 번갈아 올리는 카톡
방 '서울고 18 Music Journal'을 만들었
는데 가끔 신 편집장에게 전달한 게 계기
가 됐습니다.

제가 오늘 올린 글은 급속히 늙어가는
우리나라의 "어르신"들이 얼마 남지 않
은 노후를 어떻게 하면 잘 보낼 수 있을
까에 관한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내
용입니다.

이와 관련 최근 나온 책 'The Gift of
Aging'을 추천해 봅니다.

살아있는 매일은 선물 ... 오늘 행복하자

'쓰죽회' 무슨 생선회 이름도 아니
고 어떤 모임인 것 같은데 도무지 짐작
이 안가는 말이다. 그런데 알고 보면 별
것 아닙니다. 좀 표현이 살벌하지만 영
어로 "Die Broke", 풀어 말하면 '쓰고
죽자', "자식에게 재산을 물려주지 말
고" 라는 비장한 결의를 한 사람들의 모
임입니다. 공개적으로 활동하는 동아리
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래 전 울릉도 현포리에 이사 가서 잘
살고 있는 가수 이장희(서울고 18회로
로스앤젤레스 Radio Korea 사장 역임)
가 대표적인 '쓰고 죽자' 주의자가 됐
습니다.

일찍이 그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잘 나
갈 때 번 많은 돈을 전부 다 쓰고 죽겠
다" 고 선언하고 지인 부부를 초청해 크
루즈 여행까지 시켜주면서 멋지게 산다
는 소식이 방송에 나오기도 했지요.

이런 현실을 상당수 어르신들이 이제는
깨닫기 시작했고 그래서 어르신들 사이
에 '쓰죽회' 가 유행하게 됩니다. 남은
인생, 가진 재산을 다 '쓰' 고 '죽'
자는 모임. '쓰죽회' 는 뉴 노멀 중년
(New Normal Middle Age)의 한 현상
으로 볼 수 있는데 청년들만큼 활동적
이라는 의미에서 액티브 시니어(Active
Senior)라고도 불립니다. 많은 5070세대
가 손자를 돌보는 시간보다 여행을 좋아
하는 지인들과 어울려 밖에서 시간을 보
내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학 평생교육원이나 노인복지관에
서 만난 사람들과 취미활동도 즐기고 봉
사활동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BC(복지
관 커플)이 생기기도 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 지금 행복하겠다는 율로(YOLO:
You Only Live Once)는 더 이상 젊은이
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자식한테 부양
의 짐을 지우지 않는 것도 부모가 줄 수
있는 선물입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대책 없는 장수인데 인간 수명에 대한 여
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금 40~60
세 사이 중년의 평균 생존 기간은 100세
에 이를 것 같습니다.

50세 이후를 여생(rest of life) 이 아닌
'인생 2막'(second life)이라고 말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고, 지금까지 살아온 만
큼 살아갈 날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노후를 행복하게 지내기 위해 가장 중
요한 요건 중 하나가 사회적 관계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 관계, 다음
은 자식과의 관계, 그리고 친구와의 관
계입니다. 친구라 하면 주로 중,고등학교

동기들이 대부분인데 이제는 여러 동호
인 모임에서 만나 사귀 친구들도 노년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회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부
의 관계에서는 대화가 필요하고 자식과
의 관계에는, 우스개 소리가 아니고, "모
니, 모니" 해도 돈입니다.

시니어들에게 인생은 마치 지는 해와 같
습니다. 물론 청년같이 뛰어다니는 어르
신들도 있지만 자연의 이치는 지는 해와
같고 따라서 인생을 잘 마무리 하는 것도
축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Die Broke" 란 말을 처
음 쓴 같은 제목의 bestseller 저자로
다양한 직업(jazz pianist, trombonist,
composer, author and educator)을 가
졌던 미국의 Mark Jay Levine은 이렇게
말합니다.

"Instead of focusing on the future,
put much emphasis on today as
tomorrow."

그리고 단호하게 충고 하길 "Forget
about leaving an estate.
Use the money you've saved. Make
the most of what you've earned.

"By choosing to die broke, you turn
the future from something
to fear into something to embrace and
rejoice over. Dying broke
offers a way out of your current
misery and into a place of joy and
happiness."

그의 충고는 매우 단순 명료 합니다.
"carpe diem" 아시죠? 우리말로 "오늘
현재를 잡아라" (영어로는 "Seize the
day" 또는 "Pluck the day"). 1990
년 영화 "Dead Poet's Society" (죽
은 시인의 사회)에서 아이비리그로 가기
위해 공부가 전부인 학생들에게 Robin

Williams가 연기한 영어교사 키팅이 학
생들에게 이 말을 외치면서 더욱 유명해
진 용어입니다.

'오늘을 즐겨라.'
(그런데 carpe diem을 외치던 배우 로
빈 윌리엄스는 불행하게도 59세에 자살
로 생을 마감했는데, 원인은 치매로 인한
우울증으로 밝혀진 바, 치매의 심각성을
다시 한번 경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수 Kris
Kristofferson이 그의 유명한 1970년 노
래 "Help Me Make It Through the
Night" 에서도 간절히 말합니다.

하는 나이가 먹을수록 하라는 말이 있습
니다. 바로 'Seven Up' 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7가지의 'Up'
인 행동 준칙입니다.

1. Give Up

포기할 것은 과감히 포기해야 한다. 세
상의 모든 일이 원하는 대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그런 세상은 없다. 욕심을
버리고 할 수 없는 것, 능력을 넘어서는
것,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을 포기하라.
그것들을 잊고 놓으면 남은 인생은 편안
해진다.

2. Shut Up (Listen Up)

입을 다물라는 얘기인데 좋은 경청자가
되라는 의미다. 너무 많이 말하지 말라
는 것이다. 말하기보다는 들어라. 말하기
에 앞서 혹은 다른 사람이 말을 하려고
할 때 끼어들지 말고 그저 듣고 손뼉을
치며 고개를 끄덕이라. 끄덕임이 묵운동
이 된다.

3. Show Up

은퇴 후 은둔 생활을 하지 말라는 얘기
다. 동창회 등 각종 모임에 가능한 자주
나타날 것. 우울증이나 치매 예방에 도움
이 된다. 초대되면 반드시 참석하라. 모
임에 나타나지 않으면 다음에는 초대 받
지 못한다.

4. Clean Up

시니어가 되면 사는 집, 자기 몸 심지어
마음까지 주변을 청소해야 한다. 신변 정
리라고 하는 것이다. 누군가에게 빚이 있
다면 최대한 빨리 갚아야 한다. 특히 이
성과의 관계라면 명확히 해야 한다.

5. Pay Up

지갑을 자주 열어라. 반드시 항상 지갑을
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지만 식당 나올
때 구두 끈 매는 척 하지 마라.

6. Dress Up

평상시 입고 다니는 의상이 굳이 브랜드
제품이 아니어도 항상 단정한 모습을 가
지라는 것이다. 젊은 사람들은 젊기 때문
에 싸구려 옷을 입어도 괜찮아 보인다.
그러나 우리 경우에는 다르다. 시니어들
은 옷차림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
요가 있다.

7. Cheer Up

항상 밝고 유쾌하도록 노력하라. 현명하
고 활동적인 사람들은 주변 환경을 정말
밝고 유머러스하고 유쾌하게 만든다. 미
소는 자신의 가장 큰 특징이며 다른 사람
들에게 좋은 인상을 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 매일이 선물입니
다. **<17면으로 계속>**

알랭 들롱의 ‘태양은 가득히’를 흑백 누아르로



정태영
(문리 71 · 뉴잉글랜드)

넷플릭스 ‘리플리’를 보고

요즘 시대는 영화보기가 겁나는 시대이다. 영화가 너무 많아 자칫 잘못 골랐다면 “아이쿠, 또 시간 낭비군...”이라는 생각에 ‘입맛을 썩~ 가시게’ 하기 때문이다.

얼마전 넷플릭스에서 ‘리플리(Ripley)’를 우연히 보았다. (2023년 제작, 2024년 4월 출시). 영화는 흑백이었다. 칼라시대에 생동맞게 흑백이라니...그냥 덮을까 하는데 침 묻혀 책장 넘기듯 다음 페이지를 넘기게 하는 묘한 궁금에 빠져 그냥 그 긴 에피소드 8개를 다 보아버렸다. 마치 소설 읽는 기분이었다. 그리고 남은 결론은 “잘 만들었다” 였다. 그 외는 없다. 뭐 영화 의미가 어떻게 주제가 어떻게 하는 따위의 평은 필요없다는 것이 평이다.

만든 사람을 찾아 보니 몇 년 전 넷플릭스에서 본 ‘아이리쉬맨(The Irishman)’ (2019년 작)의 각본을 쓴 사람이었다. 그 때도 매우 잘 만들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실력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다. 코엔 형제Coen Brothers처럼.

나는 영화를 볼 때 주제-이클테면 사회적 이슈를 다루었거나 하는 따위-는 별로 관심이 없다. 대개 그런 영화치고 잘 만들어진 경우가 거의 없다. 그냥 주제로 한 뭉트 보는 것이다. 환경, 인권, 빈부 격차 등 어쩌구 저쩌구 하는 것들 말이다. 그들은 다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가 현실이나 과거를 왜곡한다. 특히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경우에는 한심한 생각까지 든다. 그러나 시류가 거기에, 대중이 거기에 편승하니...이런 현상을 보면 “이거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대책 없음’ 이란 생각만 한다.

리플리는 1960년에 만들어진 알랭 들롱의 ‘태양은 가득히(plein soleil)’의 다른 버전이다. 원작(The Talented Mr. Riply, 1955출판)은 같다. 나는 젊었을 때 ‘태양은 가득히’를 재미있게 보았기에 이 영화를 보면서 내내 1960년의 알랭 들롱의 그 우울하고 침울하고 우수에 가득 찬 그를 떠올리며 그 결말을 예상했다. 그런데 결과는 그렇지 않다. 그러나 초반부터 ‘태양은 가득히’를 머리 속에 넣고 보았으니 이해가 다른 방향으로 간 것이다. 이 영화는 ‘완전 범죄’이다. 이걸 알고 보는 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주인공 리플리는 우울하고 건조(dried)한 인물이다. 생각이 없다. 그냥 자기 목적(범죄를 감추기 위한 목적 등)을 위해 범죄를 저지른다. 침도 안 바르고 거짓말을 술술 한다. 인간애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감성이 없는 인간이다.

무대는 1961년 로마이다. 로마 광장의 석상이 어두운 밤 조명을 받아 리플리를 마치 목격자처럼 바라보지만 리플리는



카라바조의 ‘The Seven Acts of Mercy’ 그림 앞에선 리플리.

태연히 아니 백치처럼 다시 범죄를 진행한다. 도둑질도 아니고 살인이라는 범죄를... 이쯤되면 심리학자가 사이코패스라고 인터뷰할지도 모르는 캐릭터이다.

영화 전편에 음산한 분위기가 지배하고 있다. 아마 그래서 감독은 찬란한 칼라 시대에 흑백을 고집했는지도 모른다. 관객이 좋아하건 말건. 자신의 의도를 강하게 전하기 위해서.

빛과 어두움. 흑백의 분위기는 장중하다. 차분하다. 칼라가 가져다 주는 사고의 낭비를 제거하기 때문이다. 칼라풀 full-color 처럼 이것 저것 생각할 필요를 없게 해준다. 사고를 단순화해준다. 그래서 집중하게 만든다.

흑백은 인간의 사고를 마비시키는 이원론적 단순화 수법이다. “나쁜 놈 아니면 좋은 놈”, “부자(착취하는자)와 가난한자(빼앗기는 자)” ... , 뭐 요파위 구호 내지 낙인 같은 것이다. 중간의 회색 분자는 기회주의자로 낙인 찍히고 궤멸

당한다.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실상이다. 그러한 시대에 아리스토텔레스나 공자 같은 중용 주의자들은 설 자리가 없어져 버리지 오래다. 플라톤의 ‘절제’ 도 설 자리가 없다.

이 영화에선 밝고 활기찬 장면이라고는 1도 없다. 어두운 심리의 연속만 흐르고 있다. 그리고 무표정한 군상들 모습.

흥미를 끄는 것은 감독이 카라바조(바로크 시기의 이태리 화가, 1571~1610, 38세로 요절. 이미 당대에 천재화가로 평판을 받아 성당, 궁정 등에 많은 그림을 그렸다. 그는 자기가 그렸던 창녀의 포주를 결투에서 죽였다. 당시 결투는 불법이었다. 사형 언도를 받고 도피생활 중에 사망했다)의 그림을 소재로 썼다는 점이다.

그의 그림을 보면 짙은 검은색을 유난히 많이 쓰고 있다. 암흑에서 빛의 세계로 바로 전환되는 기법을 쓰고 있다. 중간이 없다. 회색이 없다. 전체적 분위기는 괴

기하고 심각한 분위기가 압도하고 있다.

초반부터 리플리는 카라바조의 작품 ‘7가지 자비로운 행위(The Seven Acts of Mercy · 1607)’가 걸려 있는 성당을 찾아 넣을 잃고 쳐다본다. 이 그림은 성경 구절 “너희는 내가 굶주릴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으며 나그네 되었을 때 너희 집으로 맞아들였고(마태복음 25:35)”를 형상화한 것이다. 이쯤되면 감독은 ‘자비’와 ‘살인자’의 극단적 대비를 암시하면서 뭔가 복선을 깔고 있는 것 같다. 좀 헛갈린다.

이후 리플리는 선한 사람을 살해하고서도 카라바조의 그림에 더 심취된다. 성당에 가서 그의 그림을 감상하고 있는 리플리에게 신부가 다가서 그에게 말한다 “빛이 균요” ; 리플리 “그래요” ; 신부 “언제나 빛이 중요하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있는 다윗(David with the Head of Goliath)’ 그림 앞에선 큐레이터가 “골리앗의 머리를 향한 다윗의 시선은 동정과 애정의 눈빛입니다. 카라바조는 살인자와 피해자를 연결했습니다” 라고 해설한다. 이 그림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얼굴은 모두 카라바조 자신의 얼굴, 하나는 젊었을 때의 카라바조, 다른 하나 즉 골리앗의 얼굴은 나이든 카라바조의 얼굴이란다.

리플리의 내면 심리를 감독은 이 그림으로 말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감독은 카라바조의 그림과 이야기를 전편에 바다 깊숙히 깔고 자신의 스토리를 전개하고 있다. 즉 리플리의 원작 소설을 카라바조의 그림의 배에 옮겨 실어 관객들에게 싶어 날리고(fly) 있는 것이다.

<16면에서 계속>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자신을 위해 그리고 혹시 여유가 있으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가진 거 다 쓰고 죽자 라는 말입니다. 이 Seven Up을 잘 지킬 수만 있다면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인 스트레스와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의 삶을 황폐화시킨 치매를 예방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참고로 정신의학에서는 ‘스트레스의 大家’하면 Hungarian-Canadian Hans Selye(한스 셀리)라는 분을 듭니다. 이 분은 1958년 스트레스 연구로 노벨 의학상을 받았습니다. (스트레스 연구에 스

트레스가 심했는지 75세에 별세).

고별 강연을 하버드 대학에서 했습니다. 강당에는 백발의 노교수들이 뻥뻥이 들 어섰습니다. 강연이 끝나자 기립 박수도 받았습니다. 강연이 끝나고 내려가는데 한 학생이 길을 막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스트레스 홍수시대를 살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비결을 딱 한 가지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자 이분은 딱 한 마디를 대답 했습니다. “Appreciation!”

“감사하며 살라”는 그 말 한마디에 장내는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감사만큼 강력한 스트레스 정화제가 없고

감사 만큼 강력한 치유제도 없다고 합니다. 종교인이 장수하는 이유 중 하나는 그들은 범사에 감사하기 때문이라합니다. 작은 일이나 하찮은 일에도 감사 드리는 이 자세가 종교인이 장수하는 비결로 의학에서는 증명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속에는 미움, 시기, 질투가 없습니다. 탈무드에 나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나이 먹는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The Gift of Aging)이라고 생각하면 기쁘게 쓰고 행복하게 떠나는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행복함과 감사함이 많은 멋진 하루 되십시오.

추신: 제가 매일 아침 친구, 여러 동아리에 올리는 MJ’s Music Journal은 2013년에 시작 했는데,평소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제 주위에 있는 분들과 공유하며 조금이라도 우리 일상에 활력소가 됐으면 하는 마음으로 시작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1950년 6,25사변 중에 창간한 한국 최초의 영자 신문인 The Korea Times에 1974년 수습기자로 들어간 후 41년 동안 일하며 2004년 3월부터 20014년 10월까지 대표이사, 발행인으로 활동 했습니다.

여의도와 머서 아일랜드



이회백
(의대 61 · 시애틀)

서울과 영등포 사이 한강에 있는 여의도는 인구 3만3천356명(2018년 조사), 면적은 4.9 평방 km (공원 포함)로 나와있다.

시애틀 동쪽 워싱턴 호수 한가운데에 있는 머서 아일랜드(Mercer Island)는 서쪽으로는 시애틀, 동쪽으로는 벨뷰라는 동네와 다리로 연결되어 있는 섬이다. 머서 아일랜드 인구는 2만5천172명(2020년 조사), 면적은 16.88 평방 km 인데 크고 작은 공원이 여럿 있다. 연 평균 기온은 섭씨 22도다.

내가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다닐 때는 마포에서 해염을 쳐 건너가 여의도 모래사장과 갈대 풀밭에서 놀다가 돌아오곤 했다. 내 기억으로 그때는 사람이 살지 않았고 경비행기 활주로가 하나 있었던 희미한 기억이 있다.

그로부터 75년이 지난 오늘날 여의도에는 가운데 공원을 제외하고는 고층 건물로 가득 차있다.

6.3 빌딩, 국회의사당 그리고 고층 아파트 빌딩이 잔뜩 들어서있다.

머서 아일랜드는 인구가 여의도보다 적는데 면적은 3배가 넘는다.

그리고 내가 2004년 이곳에 이사올 때는 대개 단층집이었고 공터가 몇 개 있었는데 이사온지 몇 해 되지 않아 공터는 다 없어지고 새 집을 지으려면 헌집을 헐고 지어야 했다. 그리고 새로 지은 집은 다 이층집으로 변했다. 약간의 상업지역이 있고 콘도가 있는데 4층으로 제한되어 있어 그 이상의 고층건물은 없다.

물가를 끼고 있는 가장 큰 공원이 있는데(이 공원은 원래 시애틀시 소유였

는데 관리가 힘들어 Mercer 시에 일부를 받고 판 공원이다). 20년 전 시에서 세수입을 늘리기 위해 물가에 마리나를 짓고 식당도 지어 세수입을 늘리자고 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하지 못했



머서 아일랜드

다. 상업 개발자들이 건축높이를 높여 줄 것을 집요하게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는 4층 이상은 못짓고 있다.

머서 아일랜드와는 달리 여의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한국에서는 어디서나 더 크게 더 높게 짓는 게 능사다. 이번 총선에서 후보자들은 너나 할것없이 자기가 당선되면 지하철을 놓겠다, 더 빠른 고속철도를 놓아주겠다 등 개발공약 경쟁이 벌어졌다. 무조건 개발만하면 더 좋은 세상이 되리라는 굳은 신념들 때문이다.

이곳 Mercer Island가 개발을 기피하는 것과는 정반대다.

누가 옳은가.

‘총, 균, 쇠’란 책을 써 유명해진 자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인류의 최대 실수는 농사를 짓기 시작하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2050년에는 이 지구가 더 이상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물질문명의 혜택을 지탱해주지 못할 것이라고 예

언하고 있다. 기후변화, 오염, 자원고갈 등을 그 이유로 들고 있다.

그의 말이 맞다면 Mercer Island가 옳을 것이고 틀리다면 여의도 사람들이 옳을 것이다.

아침 이슬은 영혼의 물방울



김태형
(의대 63년 졸업)

” 흠에서 자란 내 마음 파아란 하늘빛이 그리워 함부로 쓴 화살을 찾으려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 곳 그곳이 차마 꿈엔들 잊힐 리야. “

정지용의 시 ‘향수’에 나오는 우리 모두에게 낯익은 구절이다. 나는 외국에 오래 살면서 어린 시절 고향의 모습과 사랑하는 가족이 그리울 때면 ‘향수’를 꺼내 음미하곤 했다. 1989년 성악가 박인수 교수와 통기타 가수 이동원이 듀엣으로 부른 후부터는 가곡 ‘향수’를 자주 들었다. 하지만 노래 가사에서 “풀섶 이슬에 함추름 휘적시던”의 ‘함추름’이란 단어의 뜻이 알쏭달쏭해 애를 먹었고 내가 외국에 오래 살아서 모국어를 벌써 잊어버렸나 하고 내 머리를 쥐어박기도 했다. 한 영사전을 찾아보면 ‘함초름’은 곱고 가지런한 것이라고 풀이한다. 하지

만 ‘풀섶 이슬에’로 이어지니 이슬처럼 맑고 깨끗함이 서려 있는 촉촉하고 청결한 풀잎들이 상상되고 ‘함추름’은 ‘함초름’의 고어가 아닐까 추측도 해보았다.

아침 이슬은 새벽녘 아내가 가꾸는 정원의 꽃잎, 풀잎에서 자주 본다. 맑고 깨끗하고 구슬처럼 그리고 진주처럼 아름답다. 혹 안개라도 질게 낀 날이면 꽃잎 위로 굴러 내리는 이슬방울은 참으로 청아하고 신비롭다. 아침 이슬 하면 많은 사람이 1970년대 운동권 젊은이들이 울분에 젖어 목청껏 부르던 김민기의 ‘아침 이슬’을 생각하겠지만, 나는 삶의 무상함을 아침 이슬에 비유해 시로 읊은 많은 옛 시인, 철학자들이 먼저 떠오른다.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은데 자네는 어찌하여 이렇게 오래 자신을 괴롭히는가(人生如朝露, 何久自若如此)”라는 구절은 친구 이능이 흉노에 오랫동안 잡혀있던 전한의 사신 소무에게 말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다. 장자도 “인생은 아침 이슬과 같아 저녁이면 슬퍼진다(人生若露, 若夕悲)”라고 인생의 덧없음을 글로 남겼다. 아침 이슬(朝露)을 여러 한시에서는 草露, 露珠, 白露, 晨露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는데 모두 아름답고 빛나는 영롱한 보석을 연상케 하는 단어들이다.

우리나라 시인들도 이슬의 맑고 아름다운 모습을 노래한다. 정지용의 스승 김억은 시 ‘이슬’에서 “그대가 가는 모든 곳에 나는 이슬이 되어 흐르고 있다”고 했고, 천상병의 대표 시 ‘귀천’에는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면 스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라는 정겨운 구절이 있다. 영국 낭만주의 시대의 대표적인 시인인 John Keats는 그의 많은 시에서 자연을 예찬했고 이슬을 ‘사랑의 물방울’이라고도 했다. 사랑의 물방울! 얼마나 멋진 표현인가?

많은 시인이 인생을 아침 이슬에 비유했지만, 정약용은 덧없는 인생을 꽃에 비유한다. “꽃은 아름답지만 덧없다. 삶 또한 아름답지만 덧없으므로 매 순간을 소중히 살아라”하고 그는 유배지에서 그의 두 아들에게 신신당부한다. 의상대사나 사명대사, 그리고 많은 스님의 禪詩도 때론 이슬에, 때론 구름에 비유해 인생의 무상함을 노래한다.

나는 아침에 일찍 햇볕에 스러지는 이슬을 대할 때나 시들어 버린 꽃잎을 보면 내 걸을 일찍 떠난 아이들을 생각한다. 소아암 병동에서 아이들을 치료하면서 많은 환아를 눈물로 떠나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중에는 아주 어린 시인도, 장래가 촉망되는 피아니스트도, 그리고 뛰어난 승마선수도 있었다. 한 아

이는 커서 자기는 장례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왜 그러냐고 물으니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슬퍼하는 가족을 성심껏 위로하고 싶어서”라고 했다. 또 한 아이는 그의 많은 소장품을 나에게 남기고 갔다. 그의 유품 중에는 그가 늘 읽던 만화책으로 가득 채워진 두 개의 상자가 있었다. 그리고 상자 안에는 “김태형 선생님, 이 만화책들을 암 치료로 고생하는 아이들에게 골고루 나누어 주세요”라고 부탁하는 쪽지가 들어있었다. 나는 이들 모두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그리고 이 재능 덩어리 어린 환아들과 천사 같은 마음씨의 아이들을 그렇게 일찍 하늘나라로 데려간 하나님을 원망도 한다.

아침 이슬 중에도 햇볕에 서서히 스러지는 이슬은 인생에서 장수(長壽)에 비유할 수 있고 데굴데굴 꽃잎에서 굴러 떨어지는 영롱한 이슬방울은 어린 나이에 일찍 하늘로 떠난 아이들을 연상케 한다. 그렇다면 아침 이슬은 영혼의 물방울이라고 말해도 되지 않을까? 멀리 하늘나라로 가버린 아이들이 생각날 때면 나는 의상대사의 오도송(悟道頌)이 어김없이 떠올라 눈물을 흘린다. “해마다 꽃은 같으나 사람은 같지 않네. 내가 기억하는 얼굴은 어느 곳으로 떠났는지 모르는데, 복숭아 꽃은 옛날처럼 봄바람에 웃고만 있구나. “



김학천
(치대 73)

참척의 고통

우리말은 표현의 어휘가 참으로 다양하다. 같은 빨간색이라도 새빨간, 질빨간, 붉은, 붉으스름, 붉으스레 등 수 없이 많다. 가족관계 호칭은 또 어떨까? 형과 동생, 오빠, 누이는 차치하고 형수, 제수, 시누이, 올케,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더 나아가 고종과 이종에 사돈의 8촌, 당숙까지 외우기에도 어지러울 정도지만 단어 하나 들으면 그 관계가 확연히 들어날 정도로 아주 세밀하다.

헌데 과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이런 우리말에도 없는 말이 하나 있다. 아내 잃은 남편은 홀아비, 남편 잃은 아내는 과부, 부모 잃은 자식은 고아라고 하지만 자식 잃은 부모를 일컫는 단어 말이다. 왜일까? 이는 그 슬픔이 너무나도 크

고 비참한 심정을 형언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비록 그런 부모를 일컫는 단어는 없더라도 자식잃은 부모의 심정을 나타내는 표현이 있으니 바로 ‘참척의 고통’ 이다. 참혹할 참(慘), 슬플 척(慼), ‘너무나도 참혹하고 슬픈 감정’ 이란 뜻이다.

이런 ‘참척의 고통’ 을 일기로 써 책을 낸 이가 고(故) 박완서 작가다. 1988년 여름, 26세의 아들을 잃었다. 하나 밖에 없는 젊은 의사였던 아들을 잃은 극한의 슬픔을 견디지 못한 나머지 그녀는 통곡하며 하느님을 부정하고 포악과 저주까지 퍼부었다.

‘자식을 앞세우고도 살겠다고 꾸역꾸역 음식을 처넣는 에미를 생각하니 징그러워서 토할 것 같았다. 격렬한 토악질이 치밀어 아침에 먹은 걸 깨끗이 토해냈다.’ ‘내 아들이.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내 아들이 없는데 세상과 내가 어찌 화해할 수 있을 것인가?’ 세상에 대한 미움만 커져갔다.

부산 딸네 집에 내려와 머물던 박완서 작가가 거의 음식을 입에 대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해 술에 수면제를 타서 먹을 정도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무너져가고 있었을 때 이해인 수녀가 찾아와 권유한 대로 수녀원에 잠시 들어간다.

‘그래, 나는 주님과 한번 맞붙어보기로 했다. 주님, 당신은 과연 계신지. 계시다면 내 아들은 왜 죽어야 하는지, 내가 이렇게까지 고통받아야 하는 건 대체 무슨 영문인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말씀만 해보라고 애걸하리라.’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를 데려가시다니요. 당신도 실수를 하는군요. 그럼 하느님도 아니지요.’ ‘하느님이란 그럴 수도 있는 분인가? 사랑 그 자체란 하느님이 그것밖에 안 되는 분이러니.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아니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며 신(神)에 대한 증오도 더욱 커져만 갔다.

‘다시금 맹렬한 포악이 치밀었다. 그저 만만한 건 신이었다. 온종일 신을 죽

였다. 죽이고 또 죽이고 일백 번 고쳐 죽여도 죽을 여지가 남아 있는 신, 증오의 마지막 극치인 살의, 내 살의를 위해서도 당신은 있어야 한다. 암 있어야 하구 말구’ 라고 울부짖었다.

지난 2일 LA 한인타운에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들의 치료를 위해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총격 사망한 충격적이고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고(故) 박완서 작가는 ‘상을 당한 이에게 정중한 조문을 하는 건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덕입니다. 그러나 참척을 당한 에미에게 하는 조의는 그게 아무리 조심스럽고 진심에서 우러나온 위로일지라도 모진 고문이요, 견디기 어려운 수모였습니다’ 라며 ‘참척의 고통’ 은 ‘구원의 가망이 없는 극형’ 이라고까지 표현했다. 감히 조문의 말이 찾아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동문 양민 박사 유가족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박용필의 미국인 이야기

인생의 ‘스위트 스팟’ 은 80대부터

“나는 공이 ‘스위트 스팟(sweet spot)’에 들어오지 않으면 절대 방망이를 휘두르지 않아요. 비록 삼진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거의 20년 동안 메이저리그를 호령했던 테드 윌리엄스(1918~2002·사진)가 그의 저서 ‘타격의 과학’에서 밝힌 자신의 비법이다. 생애 통산 타율이 0.344라는 대기록을 남겨 가히 ‘야구의 신’이라 할 만하다.

타격의 달인이라도 한해에 3할을 치기도 힘든데 어떻게 그 긴 세월동안 3할 중반대의 타율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 더구나 윌리엄스는 메이저리그에선 유일하게 한 시즌 4할을 친 적도 있다. 바로 스위트 스팟을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가장 잘 칠 수 있는 지점에 들어오는 공에만 배트를 갖다 댔다.

스위트 스팟은 야구나 골프, 테니스 등 스포츠에서 많은 힘을 들이지 않고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멀리, 빠르게 날아가게 하는 최적점이다. 달콤한 기분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윌리엄스는 이를 스위트 스팟이라고 불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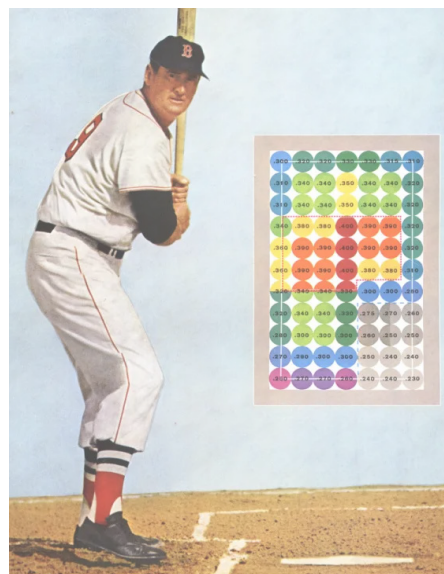
야구에선 방망이의 헤드 끝에서 약 17cm 지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곳에 공

이 맞는 순간 깨끗한 안타를 뽑아내기도 하고 때로는 장쾌한 포물선을 그리며 담장을 훌쩍 넘기기도 한다.

윌리엄스는 스위트 스팟에 관한 한 거의 동물적인 감각을 갖고 있는 선수다. 한국전쟁에 전투기 조종사로 참전, 몇차례 죽을 고비를 넘겼지만 귀국해서도 스위트 스팟에 대한 감각은 시들지 않았다. 언젠가 그는 기자들에게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다. “어떻게 홈런을 쳤나고요? 공이 스위트 스팟에 닿는 순간 수박만하게 보입니다.”

원래는 스포츠 용어나 요즘은 정치,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폭넓게 쓰인다. ‘오마하의 현인’ 워렌 버핏 역시 윌리엄스의 광팬이다. 투자 조언을 하면서 그는 종종 ‘타격의 과학’을 인용한다. “주식 투자에서도 꼭 방망이를 크게 휘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스위트 스팟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살짝 대기만 하세요. 대박 납니다.” 야구의 신과 투자의 신 둘 다 좋은 성적을 내려면 참을성이 절대적이라고 가르친다.

스포츠와 경제도 그럴진대 우리 삶에도 스위트 스팟이 있을 터다. 이른바 가장 행복한 연령층이다. 어느한가 껀립이 여론조사를 했다. 행복도를 1~10까지로 정



하고는 나이대별로 수치화했다.

20대 초중반대의 만족도는 7.5 가량. 인생을 첫 출발하는 시점이어서 꿈도 많고 앞날을 생각하면 꽤나 흥분되는 연령대다. 가장 낮은 세대는 40대말부터 50대 중반사이. 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퇴연령인 65세 이후는 그러나 ‘행복 시작’이어서 수치가 거의 8에 이른다.

꼭 미국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건 아니다. 전세계 80개국에서 비슷한 조사를 했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20대 후반

부터는 내리막길을 달리다가 40대 후반에 이르면 최악의 상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 자식농사는 뜻대로 되지 않지, 인생설계도 목표를 크게 벗어났지, 배우자는 늘 툭툭대지, 삶은 그저 불행의 연속일 뿐.

중년의 위기를 슬기롭게 넘기면 툭툭랄라 행복이 기다린다. 왜 그럴까. 나이가 먹으면 미래를 설계하기 보다는 되도록 현재에 맞춰 살아가기 때문이다. 돈을 더 벌어서 성공하겠다는 욕심따위엔 관심이 없고 작은 일에도 행복을 느끼게 된다.

시간의 지평이 갈수록 짧아지는 고령층의 행복도는 어떨까. 놀랍게도 80대 이상의 행복지수는 8.5에 달한 것으로 나왔다. 실제로 미국 학술원은 삶의 진정한 행복은 85세 이후 최고조에 이른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적도 있다. 34만명을 조사해 분석한 결과여서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 같다.

지난 5월초 남가주 서울대 산악반이 암벽등반을 갔다. 80대 초반의 한 동문은 마치 스파이더맨처럼 바위를 타 주변을 놀라게 했다. 이날 7080 연령층 대원들은 거의 빠짐없이 로프를 맨채 암벽에 올랐다. 인생의 스위트 스팟, 정말 80대인 것을 몸으로 입증해냈다.

www.snuaa.org

서울대 미주동창회 CENTURY FOUNDATION

미주동창회 재정자립 모금 캠페인

후원해 주신 동문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변함없는 사랑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원히 새겨질 나의 이름”
서울대 미주동창회 종신이사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는 미국 내에서 최초의
면세 혜택을 승인받은, 29개 지부 및 미주지역
2만여 동문을 대표하는 유일한 기관입니다.

종신이사

다이아몬드이사 (\$100,000이상)

워싱턴주 - 고고광선 (공대 57)

플래티넘이사 (\$50,000이상)

조지아 - 주중광 (약대 60)
조지아 - 허지영 (문리대 66)
뉴욕 - 조상근 (법대 69)

골드이사 (\$10,000이상)

남가주 - 김경숙 (간호대 68)
남가주 - 김일영 (의대 65)
남가주 - 노명호 (공대 61)
남가주 - 박중수 (수의대 58)
남가주 - 박창규 (약대 59)
남가주 - 서치원 (공대 69)
남가주 - 성낙호 (치대 63)
남가주 - 심화섭 (약대 61)
남가주 - 이기준 (법대 54)
남가주 - 이병준 (상대 55)
남가주 - 이홍표 (의대 58)
남가주 - 한홍택 (공대 60)
남가주 - 벤자민 홍 (문리대 53)
남가주 - 오드라 홍 (음대 70)
남가주 - 하기환 (공대 66)
남가주 - 한귀희 (미대 68)
남가주 - 홍수웅 (의대 59)
네바다 - 정상진 (상대 59)
뉴욕 - 오인석 (법대 58)
뉴욕 - 이정자 (간호대 59)
뉴잉글랜드 - 박영철 (농대 64)
뉴잉글랜드 - 윤상래 (수의대 62)
뉴잉글랜드 - 정선주 (간호 68)
뉴잉글랜드 - 최홍균 (공대 69)
미시간 - 박용화 (의대 52)
북가주 - 김정희 (음대 56)
북가주 - 민병곤 (공대 65)
북가주 - 전해경 (문리대 67)
샌디에고 - 이면기 (공대 64)
시카고 - 이용락 (공대 48)
워싱턴주 - 양남주 (명예이사)
워싱턴DC - 이태영 (법대 60)
조지아 - 김현희 (간호대 59)
커네티컷 - 김창수 (의대 54)

필라델피아 - 김영우 (공대 55)
필라델피아 - 손재욱 (가정 77)
필라델피아 - 이만택 (의대 52)
하트랜드 - 이상강 (의대 70)
하트랜드 - 김경숙 (가정 70)

실버이사 (\$5,000이상)

남가주 - 김원경 (약대 59)
남가주 - 권봉성 (문리대 64)
남가주 - 김병연 (공대 68)
남가주 - 박인창 (농대 65)
남가주 - 이종도 (공대 66)
남가주 - 이종모 (간호대 69)
남가주 - 이호진 (간호대 74)
남가주 - 정재훈 (공대 64)
뉴욕 - 김현중 (공대 63)
루지애나 - 강영빈 (문리대 58)
워싱턴주 - 김재훈 (공대 72)
워싱턴DC - 남옥현 (경영대 84)
조지아 - 김경숙 (사대 64)
조지아 - 김태형 (의대 57)
조지아 - 임수암 (공대 62)
필라델피아 - 신의석 (공대 53)
미네소타 - 황호수 (사대 65)

종신이사 (\$3,000이상)

남가주

故노재성 (법대 58)
故서영석 (의대 55)
故오재인 (치대 33)
故윤낙승 (의대 60)
강신용 (사대 73)
곽웅길 (문리대 59)
권기홍 (의대 60)
김광은 (음대 56)
김기형 (상대 75)
김대중 (의대 70)
김동훈 (의대 71)
김보연 (간호대 63)
김상찬 (문리대 65)
김성호 (법대 64)
김수영 (사대 57)
김재영 (농대 62)
김정빈 (공대 66)

나두섭 (의대 66)
류재풍 (법대 60)
박명근 (상대 63)
박용필 (문리대 66)
박원준 (공대 53)
박윤수 (문리대 48)

방명진 (공대 73)
백길영 (의대 58)
백만일 (공대 64)
서동영 (사대 60)
신건호 (법대 53)
신영찬 (의대 62)
심상은 (상대 54)
안병일 (의대 63)
오홍조 (치대 56)
이근원 (공대 67)
이명선 (상대 58)
이성숙 (공대 56)
이세열 (사대 57)
이승훈 (상대 74)
이채진 (문리대 55)
이청광 (상대 61)
임낙균 (약대 64)
임용오 (의대 57)
전경배 (의대 69)
전희택 (의대 58)
정균희 (의대 64)
정동구 (공대 57)
정임현 (간호대 72)
정철룡 (의대 55)
제영혜 (가정대 71)
조용원 (문리대 66)
조한원 (의대 57)
차민영 (의대 76)
차중환 (사대 54)
한호동 (공대 58)
홍성선 (약대 72)
홍종화 (약대 74)

뉴욕

故김광호 (문리대 62)
故한창섭 (문리대 57)
강에드워드 (사대 60)

고애자 (음대 57)
권영국 (상대 60)
김승호 (공대 71)
김영용 (치대 55)
김종률 (사대 51)
김한중 (의대 56)
김해암 (의대 52)
배정희 (사대 54)
서영숙 (간호대 67)

석창호 (의대 66)
손진태 (약대 67)
신응남 (농대 70)
윤중숙 (약대 66)
이강홍 (상대 60)
이기영 (농대 70)
이대영 (문리대 64)
이영재 (상대 58)
이재덕 (법대 60)
이재량 (상대 61)
이전구 (농대 60)
이준행 (공대 47)
이태호 (상대 58)
최수용 (상대 55)
최영태 (문리대 67)
최한용 (농대 58)
추재욱 (의대 57)
한태진 (의대 58)
허선행 (의대 58)

뉴잉글랜드

故고일석 (보건대 69)
故박경민 (의대 53)
김광수 (문리대 73)
고종성 (사대 75)
김문소 (수의대 61)
김용구 (공대 66)
오세경 (약대 61)
윤선홍 (치대 64)
이익인 (공대 68)
전신의 (문리대 57)
정정욱 (의대 60)
정태영 (문리대 71)
조만연 (상대 58)
홍지복 (간호대 70)

워싱턴DC

故방은호 (약대 43)
강연식 (사대 58)
공순옥 (간호대 66)
권기현 (사대 53)
민홍기 (문리대 61)
박평일 (농대 69)
서희열 (의대 57)
오인환 (문리대 63)
이내원 (사대 58)
이선구 (문리대 65)
이윤주 (상대 63)
최재귀 (미대 63)
최지원 (의대 61)

미시간

故남상용 (공대 52)
故정태 (의대 57)
장병진 (공대 61)

북가주

강재호 (상대 57)
손석보 (공대 68)
윤정욱 (약대 50)
최경선 (농대 65)
한만섭 (공대 49)

시카고

강영국 (수의대 67)
심상구 (상대 63)
이재희 (치대 67)
장윤일 (공대 60)
조봉완 (법대 53)
최의필 (의대 53)
한재은 (의대 59)

오레곤

김상순 (상대 67)
박희진 (농 78)
이은상 (상대 52)

종신이사 후원금

Century Foundation Fund \$104,000
(7/1/23 - 12/31/23 17대 1차 회기 6개월)

샌디에고

임천빈 (문리대 61)
미네소타
김권식 (공대 61)
김태환 (의대 58)
남세현 (공대 67)
변우진 (인문대 81)
조형준 (문리대 62)

휴스턴

박진섭 (의대 67)

오하이오

김용현 (경원 66)
이지우 (의대 68)

워싱턴주

故김영일 (공대 53)
이명자 (간호대 74)
이희백 (의대 55)
임현민 (공대 84)

조지아

김용건 (문리대 48)
석호태 (공대 85)
이종석 (의대 54)

커네티컷

故유시영 (문리대 68)

플로리다

김중권 (의대 63)
임필순 (의대 54)

텍사스

박태우 (공대 64)
이광연 (공대 60)
조시호 (문리대 59)

필라델피아

고병은 (문리대 55)
김현영 (수의대 58)
서종민 (공대 64)
손재욱 (가정대 77)
신성식 (공대 56)
주기목 (수의대 68)

하트랜드

김명자 (문리대 62)
김시근 (공대 72)
배규영 (사대 68)
오명순 (가정대 69)
이교락 (의대 53)

하와이

故최경윤 (사대 51)

알래스카

윤제중 (농대 55)

이사 구분

다이아몬드 이사
\$100,000 이상

플래티넘 이사
\$50,000 이상

골드이사
\$10,000 이상

실버이사
\$5,000 이상


종신이사
\$3,000 이상



보내주신 사랑 감사합니다.

동창회비 (제1차 회기: 2023.7.1 - 2023.12.31; 제2차 회기: 2024.7.1 - 2025.6.30) 볼드는 제 2차회기

<p>남가주</p> <p>강경수 (법 58) 강동순 (법 59) 강윤희 (간 46) 강창만 (의 58) 강춘자 (간 69) 강호석 (상 81) 고남규 (의 68) 고석규 (치 65) 권기상 (대 72) 권봉성 (문 64) 권경 (문 63) 김경수 (사 58) 김건진 (문 62) 김동석 (음 64) 김영배 (미 61) 김경수 (치 54) 김경옥 (미 61) 김경자 (미 60) 김광은 (음 56) 김난영 (공 53) 김원탁 (공 65) 김동산 (법 59) 김명숙 (농 58) 김명희 (간) 김문엽 (농 83) 김범수 (문 61) 김병완 (공 58) 김상찬 (문 65) 김석홍 (법 59) 김성호 (법 64) 김성환 (의 65) 김수향 (간 68) 김순갈 (법 54) 김순자 (치 57) 김영덕 (법 58) 김옥경 (생 60) 김유주 (간 69) 김용채 (문 61) 김일영 (의 65) 김재영 (농 62) 김정애 (간 69) 김정호 (농 59) 김중표 (법 58) 김준일 (공 62) 김찬진 (공 77) 김태환 (문 78) 김태윤 (법 53) 김택수 (의 57) 김학철 (의 55) 김혜숙 (미 68) 김흥목 (문 60) 김희창 (공 64) 나두섭 (의 66) 나승욱 (문 59) 노명호 (공 61) 문경호 (문 59) 문병길 (문 61) 마동일 (의 57) 민영기 (공 65) 민일기 (약 69) 박명근 (상 63) 박민석 (수 65) 박부강 (사 64) 박상원 (대 20) 박원준 (공 53) 박용 (문 89) 박우선 (공 57) 박은숙 (미 62) 박인수 (농 64) 박인창 (농 65) 박일우 (의 70) 박입하 (치 56) 박자경 (생 60) 박중수 (수 58) 박찬호 (공 58) 박찬호 (농 63) 박한영 (치) 박혜우 (간 69) 박호현 (의 52) 박흥근 (공 64) 박희자 (음 68) 박명진 (공 73) 배동환 (공 65) 백옥자 (음 71) 백혜란 (미 70) 벤자민 흥 (문 53) 서동영 (사 60) 서명희 (농 67) 서세진 (음 62) 서치원 (공 69) 성낙호 (치 63)</p>	<p>성주경 (상 68) 손갑수 (약 59) 손기웅 (의 55) 손학식 (공 61) 송명국 (문 81) 신건호 (법 63) 신동국 (수 76) 신영찬 (의 62) 신정연 (미 61) 양승문 (공 65) 양승조 (음 70) 양은석 (음 70) 양태준 (상 56) 오선웅 (의 63) 오찬수 (약 57) 故 오형원 (의 53) 우춘식 (상 61) 원종민 (약 57) 위중민 (공 64) 유덕영 (공 57) 유이중 (농 74) 유석환 (치 55) 육태식 (의 61) 윤경민 (법 55) 윤영돈 (법 59) 윤희성 (치 65) 이강훈 (치 65) 이건일 (의 62) 이경희 (인 83) 이기준 (법 54) 이방기 (농 59) 이법식 (공 61) 이상무 (의 56) 이서희 (법 70) 이성숙 (공 56) 이성자 (간 76) 이소희 (의 61) 이영수 (상 60) 이영일 (문 53) 이영현 (간 70) 이용한 (공 64) 이원택 (의 65) 이원익 (문 73) 이익삼 (사 58) 이장길 (치 63) 이재권 (법 56) 이정근 (사 60) 이정남 (공 63) 이정화 (공 52) 이종모 (간 69) 이준호 (상 65) (고)이중희 (공 53) 이진영 (의 65) 이창무 (공 54) 이창신 (법 57) 이채진 (문 55) 이태영 (법 60) 이호 (음 92) 임동규 (미 57) 임동호 (약 55) 임문빈 (상 58) 임석중 (공 50) 장기열 (치 55) 장기창 (공 56) 장대욱 (음 57) 장동석 (문 66) 장문섭 (공 69) 장소현 (미 65) 장원경 (미 73) 장윤희 (사 54) 장인숙 (간 70) 장정용 (미 64) 장춘호 (공 56) 전경배 (의 69) 전낙관 (사 60) 전범수 (농 71) 전상욱 (사 52) 전원일 (의 77) 정균희 (의 64) 정동주 (생 72) 정예현 (상 63) 정연웅 (상 63) 정인환 (법 54) 정재형 (약) 정철룡 (의 61) 정현진 (간 68) 정형민 (문 71) 정혜령 (간 72) 정황 (공 64) 제영혜 (생 71) 조경애 (음 64) 조동철 (사 68)</p>	<p>조재국 (농 67) 주선희 (문 66) 주정래 (상 65) 조승자 (간 61) 조태욱 (사 60) 주훈 (음 69) 차종환 (사 54) 최복철 (공 70) 최영구 (상 61) 최영순 (간 69) 최영지 (미 62) 임동규 (미 57) 한귀희 (미 68) 한동수 (의 60) 한성구 (상 53) 한원민 (의 59) 한의일 (공 62) 한정현 (치 55) 한홍택 (공 60) 현기웅 (문 64) 홍이중 (농 74) 홍선일 (공 71) 홍수웅 (의 59) 황건홍 (공 55) 황현상 (의 55)</p> <p>뉴욕 Aija Lee 객선섭 (공 61) 강상진 (의 53) 고순정 (간 69) 고애자 (음 57) 권문웅 (미 61) 권태국 (상 60) 권영대 (공 69) 권정덕 (의 58) 금영천 (약 72) 이영수 (상 60) 김문경 (약 61) 김승호 (공 71) 김우영 (상 60) 김영무 (공 75) 김영웅 (치 55) 김영철 (의 55) 김영희 (법 80) 김용연 (문 63) 김중희 (간 69) 김중원 (거 58) 김진자 (간 60) 김창수 (약 64) 김창화 (미 65) 김태일 (공 68) 김학자 (간 59) 김해일 (의 52) 김현중 (공 63) 남상래 (간 65) 문석민 (의 52) 민인기 (의 67) 리준우 (음 65) 박건이 (공 60) 박종희 (음 57) 박상수 (공 56) 박은규 (약 72) 방준재 (의 70) 방경웅 (공 65) 변호련 (간 63) 배상규 (약 60) 서충선 (사 57) 성창호 (의 66) 선종철 (의 59) 성기호 (약 57) 손갑수 (약 59) 손경택 (농 57) 송기인 (의 60) 송용길 (대학원 69) 신두식 (의 58) 신응남 (농 70) 안태홍 (상 65) 양명자 (사 63) 양성택 (상 66) 오홍호 (의 66) 오용환 (약 68) 에드워드 강 (문 60) 우규환 (사 60) 우상영 (상 55) 유인숙 (간 65) 유재섭 (공 63) 육순재 (의 63) 윤병남 (사 62) 윤영선 (의 57) 윤철 (문 54) 윤현남 (공 64)</p>	<p>이강욱 (공 70) 이명종 (공 72) 이문봉 (미 76) 이충욱 (농 69) 이충호 (의 63) 이상근 (상 84) 이상우 (의 56) 이상일 (의 60) 이유성 (사 57) 이재진 (의 59) 이준행 (공 48) 이태안 (의 61) 이흥우 (공 50) 전병삼 (약 54) 정동성 (상 58) 정인용 (의 71) 정해민 (법 55) 정화용 (사 61) 조남천 (사 59) 조대영 (공 61) 조득환 (의 61) 조종수 (공 64) 조태환 (상 56) 진봉일 (공 50) 차국만 (상 60) 최영태 (문 67) 최승웅 (의 61) 최춘희 (의 58) 최정웅 (사 63) 최한웅 (농 58) 최형무 (법 69) 한병웅 (문 71) 한태진 (의 58) 함종국 (상 66) 허경력 (의 71) 허선행 (의 58) 허정열 (사 63) 홍정표 (음 67)</p> <p>뉴잉글랜드 광노균 (상 51) 김경일 (공 58) 김문수 (수 61) 김선혁 (약 59) 김옥동 (사 58) 박영철 (농 64) 박종근 (의 56) 송미자 (농 62) 윤상래 (수 62) 윤영자 (미 60) 이규진 (의 60) 이금하 (문 69) 이은주 (음 73) 이의인 (공 68) 임영호 (공 72) 장용복 (공 58) 정선주 (간 68) 정정욱 (의 60) (고)추정준 (의 50) 최선의 (문 69) 한서동 (의 61)</p> <p>네바다 김상순 (상 67) 김영중 (공 66) 김용재 (의 60) 이학은 (약 57) 정상진 (상 59)</p> <p>달라스 최취기 (공 61)</p> <p>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문성인 (공 88) 민홍기 박현아 (공 88) 성유진 용정식 (농 86) 이창재 (문 56) 주한수 (수 62) 황효숙 (사 65)</p> <p>미시간 고광국 (공 54) 고선희 (문 63) 김국화 (공 56) 김우신 (의 60) 김정화 (음 56) 김재석 (의 61) 남성희 (의 56) 박용화 (의 58)</p>	<p>오동환 (의 65) 오혁주 (사 88) 이성길 (의 65) 장병진 (공 61) 조병권 (공 64) 주명순 (간 64) 하계현 (공 64)</p> <p>북가주 강재호 (상 57) 김교연 (문 72) 김성철 (공 82) 김성복 (사 55) 김정희 (법 56) 김현양 (공 64) 남규영 (공 64) 박서규 (법 56) 박성수 (공 59) 박영훈 (공 72) 송영훈 (상 57) 신규영 (공 64) 안호삼 (문 58) 위창호 (의 67) 이관모 (공 55) 이성원 (공 65) 이성형 (공 57) 이창한 (공 56) 이흥기 (공 62) 임승배 (문 66) 임정란 (음 76) 전병련 (공 54) 정충임 (간 67) 조태욱 (사 60) 최경선 (농 65) 한상봉 (수 67) 홍병익 (공 68) 황동하 (의 65)</p> <p>샌디에고 고경하 (공) 김인철 (약 70) 남장우 (사 56) 이문수 (공 62) 오계환 (공 64) 윤진수 (의 57) 이문상 (공 62) 이면기 (공 64) 이영신 (간 77) 임춘수 (의 57)</p> <p>시카고 강영국 (수 67) 구경희 (의 59) 김길준 (의 59) 김규호 (의 58) 김병윤 (문 65) 김성일 (공 68) 김승주 (간 69) 김용주 (공 69) 김용환 (공 71) 김윤하 (공 66) 김정수 (문 69) 김현주 (문 61) 노영일 (의 64) 민영기 (공 65) 김용재 (정 58) 박정일 (의 61) 박준욱 (공 56) 백운기 (문 56) 서상현 (의 65) 소진문 (치 58) 송재현 (의 45) 신석근 (문 54) 안영학 (문 57) 유기정 (간 72) 육길원 (사 59) 윤경순 (사 61) 윤덕식 (치 62) 이경미 (미 69) 이건정 (공 69) 이도규 (공 75)</p>	<p>이소희 (간 68) 이승자 (사 60) 이시영 (상 45) 이용락 (공 48) 이용수 (약 51) (고)이윤모 (농 57) 이종일 (의 65) 장윤일 (공 60) 전현학 (공 69) 전현일 (농 62) 조대현 (공 67) 최대한 (의 59) 최혜숙 (의 53) 최희수 (문 67) 한재은 (의 59) 홍건 (의 64) 홍청일 (약 57) 황소나 황치룡 (문 65)</p> <p>아리조나 진명규 (공 70)</p> <p>오레곤 김영자 (간 56) 박희진 (농 78) 최용성 (의 55) 한국남 (공 57) 한영준 (사 60)</p> <p>오하이오 명인재 (자 75) 박훈 (공 74) (고)이영웅 (의 57)</p> <p>워싱턴 DC 강길중 (약 69) 고의걸 (의 55) 광명수 (문 65) 권철수 (의 68) 김기봉 (공 63) 김기한 (공 67) 김내도 (공 62) 김부근 (의 58) 김영란 (사 58) 김윤호 (공 64) 김용환 (치 88) 김희주 (의 62) 나연수 (사 57) 남춘일 (사 69) 박인영 (의 69) 박일영 (문 59) 박찬모 (공 54) 박홍우 (문 61) 배성호 (의 65) 백순 (법 58) 백용현 (공 64) 서윤석 (의 62) 석균범 (문 61) 신경은 (문 65) 오인환 (문 63) 양용관 (수 62) 우재형 (상 54) 유달 (의 67) 유영신 (간 74) 유영준 (의 74) 이견형 (수 54) 이내원 (사 58) 이서구 (문 61) 이선구 (문 65) 이성배 (수 57) 이연주 (치 88) 이영덕 (사 61) 이윤주 (상 63) 이재승 (의 55) 이종국 (의 52) 이준영 (치 74) 이진상 (공 57) 이철수 (공 61) 임광록 (간 72) 전희순 (간 76)</p>	<p>정영자 (사 56) 정원자 (농 62) 정평희 (공 71) 조병선 (의 65) 천권희 (간) 최경수 (문 54) 최대영 (의 73) 최재귀 (미 63) 한광수 (의 57) 홍영석 (공 58)</p> <p>워싱턴주 권영희 (약 66) 김교선 (법 54) 김인배 (수 59) 김재훈 (공 72) 류성열 (공 72) 변동해 (법 58) 안승직 (농 59) 윤석진 (문 64) 윤태근 (상 69) 이길승 (상 57) 이명자 (간 74) 이연주 (치 88) 이회백 (의 55) 정영자 (사 56) 최준환 (농 58)</p> <p>유타 김인기 (문 57)</p> <p>조지아 김기준 (공 61) 김영서 (상 54) 김중구 (수 73) 김현희 (간 59) 백낙영 (상 61) 서광모 (공 65) Steve Sung 오경호 (수 60) 윤영돈 (법 59) 은철수 이종석 (의 54) 임수암 (공 62) 임한웅 (공 60) 정선휘 (공 65) 최석순 (간 58) 최종진 (의 63) 한성수 (의 54)</p> <p>캐롤라이나 이종영 (음 58) 정신호 (자 78)</p> <p>커네티컷 라찬국 (의 57) 최창승 (의 58)</p> <p>테네시 김경덕 (공 75) 서갑식 (공 70) 임효순 (간 71)</p> <p>텍사스 김장환 (공 81) 유허 (농 56) 윤영주 (문 60) 조진태 (문 57) 전중희 (공 56) 진기주 (상 60) 황명규 (공 61)</p> <p>플로리다 김성준 (의 55) 김중권 (의 63) 박창익 (농 64) 안창현 (의 55) 오석일 (의 64) 원인순 (문 71) 이민우 (의 67) 이만택 (의 52)</p>	<p>정의철 (의 55) 하재청 (문 67)</p> <p>필라델피아 고병은 (문 55) 강준철 (사 59) 김국간 (치 64) 김규화 (상 63) 김현영 (수 58) 손재욱 (가 77) 송성균 (공 50) 서의원 (공 66) 서중민 (공 64) 성정호 (약 59) 신선자 (사 60) 심영석 (공 76) 안세현 (의 62) 엄종렬 (미 61) 유영걸 (의 70) 윤경숙 (문 59) 윤정나 (음 57) 이규호 (공 56) 이성숙 (생 74) 이수경 (자 81) 이지춘 (미 57) 이홍일 (상 70) 조화연 (음 64) 전무식 (수 61) 전방남 (상 73) 정덕준 (상 63) 정확량 (약 56) 정홍택 (상 61) 조정현 (수 58) 주기목 (수 68) 지흥민 (수 61) 최현태 (문 62) 한동휘 (문 57) 한수웅 (의 55) 한용오 (보 70)</p> <p>하와이 김달욱 (사 55) 김용수 (농 75) 김을균 (공 63) 안은식 (문 55) 이재형 (수 61) 최경윤 (사 51) 하인환 (공 56)</p> <p>하트랜드 김경숙 (가 70) 김재경 (공 64) 김태찬 (음 80) 김시근 (공 72) 배규영 (사 68) 오명순 (생 69) 이광자 (간 63) 이상강 (의 70) 이주현 (미 92) 이치현 (약 77) 임소연 (음 91) 정민재 (농 71) 조원지 (문 63) 호민선 (상 59)</p> <p>휴스턴 김영일 (의 55) 박석규 (간 59) 박유미 (약 62) 박태우 (공 64) 이윤성 (수 81) 이은애 (음 81) 이학호 (수 59) 진기주 (상 60) 최관일 (공 54) 최성호 (문 58) 최용천 (의 53)</p> <p>룩키마운틴스 송요준 (의 64) 전남민 (사 72)</p>
--	--	---	--	---	--	---	---



**내가 내는 동창회비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일반후원금, 장학기금, 모교발전기금, 광고후원금, 지부 분담금 2023.7.1 - 2024.6.30

일반후원금

남가주	
김동석 (음 64)	100
김성환 (의 65)	300
송영두 (공 59)	200
박우선 (공 57)	300
박중수 (수 58)	5,000
박한영 (치)	100
백만일 (공 64)	200
백옥자 (음 71)	200
벤자민 홍 (문 53)	1,000
손기웅 (의 55)	200
양은석 (음 70)	500
양승문 (공 65)	200
이범식 (공 61)	200
이상대 (농 85)	500
이영일 (문 53)	10,000
임낙균 (약 64)	10,000
전상욱 (사 52)	1000
정균희 (의 64)	200
한귀희 (미 68)	50
한정현 (치 55)	500
황현상 (의 55)	100
뉴욕	
곽선섭 (공 61)	200
신응남 (농 70)	500
김해암 (의 52)	100
리준우 (음 65)	200
문석면 (의 52)	200
우용환	1,000
윤철 (문 54)	200
이준행 (공 48)	1,000
조남천 (사 59)	200
에드워드강 (문 60)	300
허선행 (의 58)	200
북가주	
이성원 (공 65)	200
플로리다	
김중권 (의 63)	200
오석일 (의 64)	200
네바다	
김상순 (상 67)	200
미시간	
이상길 (의 65)	200

커네티컷	
최창송 (의 58)	200
샌디에고	
임춘수 (의 57)	300
워싱턴DC	
강길중 (약 59)	500
권철수 (의 68)	200
김명철 (공 60)	200
민홍기 (문 61)	1,000
서윤석 (의 62)	200
박평일 (농 69)	1,000
백순(범 58)	100
정평희 (공 71)	200
시카고	
소진문 (치 58)	200
최희수 (문 67)	100
뉴잉글랜드	
윤상래 (수 62)	1,000
테네시	
김경덕 (공 75)	200
텍사스	
황명규 (공 61)	200
필라델피아	
최창송 (의 52)	500
손재욱 (가 77)	500
미네소타	
김권식 (공 61)	1,500
조지아	
최종진 (의 63)	5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41,000
휴스턴	
진기주 (상 60)	1,000
하와이	
(고) 전영표 (문 55)	1,000

업소록 후원금	
남가주	
서동영 (사 60)	240
김원탁 (공 65)	240
강호석 (상 81)	240
이종모 (간 69)	240
정균희 (의 64)	240
정재훈 (공 64)	240
하기환 (공 66)	240
김경무 (공 69)	240
김원탁 (공 65)	240
김일영 (의 65)	240
신동국 (수 76)	240
최무식 (약 66)	240
아주투어	500
이경희 (인 83)	240
이병준 (상 55)	240
이상대 (농 80)	240
이승훈 (상 74)	240
이태영 (범 60)	480
뉴욕	
김승호 (공 71)	240
신응남 (농 70)	240
석창호 (의 66)	240
오레곤	
박희진 (농 78)	24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40
장학기금	
남가주	
박원준 (공 53)	300
뉴욕	
선종철 (의 59)	100
신응남 (농 70)	200
홍성선 (약 72)	1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200
Charity Fund	
필라델피아	
신익석 (공 53)	5,000

시카고	
김현주 (문 61)	3,000
이용락 (공 48)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하트랜드	
이상강 (의 70)	10,000
Website 광고	
남가주	
김자성 (의 79)	1,000
광고후원금	
남가주	
김양희 (음 77)	900
류원 (대학원 74)	1,500
미주재단	9,000
박수경 (생 84)	3,000
서치원 (공 69)	1,500
신동국 (수 76)	300
이병준 (상 55)	1,500
이경희 (인 83)	300
하기환 (공 66)	1,000
홍훈정 (음 70)	300
뉴욕	
김승호 (공 71)	1,500
모교발전기금	
남가주	
박우선 (공 57)	300
워싱턴 DC	
권철수 (의 68)	100
한광수 (의 57)	300
오레곤	
김영자 (간 56)	1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인명록비	
뉴욕	
신응남 (인명록 책값)	50

튀르키예 기부금	
남가주	
서진 (간)	3,000
뉴욕	
신응남 (농 70)	200
Brain Network	
뉴욕	
신응남 (농 70)	100
시카고	
한재은 (의 59)	100
워싱턴 DC	
오인환 (문 63)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나눔기금	
남가주	
주선희 (문 66)	50
뉴욕	
조태환 (상 56)	100
신응남 (농 70)	200
필라델피아	
손재욱 (가 77)	200
펜실베이니아	
손재욱 (가 77)	200
신익석 (공 53)	5,000
지부분담금	
남가주	
임춘택 (상 68)	
북가주	
김범섭 (공 79)	

뉴잉글랜드	
최민진 (공 71)	
뉴욕	
연영재 (공 74)	
미네소타	
윤정식 (농 86)	
워싱턴 DC	
정세근 (자 82)	
워싱턴	
임현민 (공 84)	
룩키타운스	
최문기 (공 73)	
조지아	
배혜영 (음 79)	
샌디에고	
송오석 (공 91)	
캐롤라이나	
정신호 (자 78)	
휴스턴	
김정환 (공 80)	
하와이	
성낙길 (문 77)	
필라델피아	
심희진 (음 90)	
하트랜드	
임소연 (음 91)	
시카고	
조규승 (문 72)	
애리조나	
정인주 (농 82)	
오레곤	
박희진 (농 78)	
오하이오	
이성우 (상 72)	

알 림

동문들께서 보내주시신 동창회비와 후원금은 매월 15일에 마감 해서 올립니다. 혹시 누락된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snuaausa17@gmail.com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회비	종신이사	업소록 광고비	특별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100 (2023/7~2024/6, 1년) <input type="checkbox"/> \$200 (2023/7~2025/6, 2년)	<input type="checkbox"/> \$3,000 이상 <input type="checkbox"/> \$5,000 실버 <input type="checkbox"/> \$10,000 골드 <input type="checkbox"/> \$_____	<input type="checkbox"/> \$24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480 (2023/7월 ~ 2025/6월, 2년) <input type="checkbox"/> \$500 (2023/7월 ~ 2024/6월, 1년)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일반광고비	Website 광고비
<input type="checkbox"/> 전면 10"x12" Color \$1,500 <input type="checkbox"/> 전면 10"x12" Black \$1,000 <input type="checkbox"/> 1/3면 10"x4" Color \$400	<input type="checkbox"/> \$500 (1년, 3.5" x 2") <input type="checkbox"/> \$1,000 (1년, 5" x 4.5")

Total: \$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 USA**

주소: SNUAA USA
2416 James M Wood Blvd. Suite B, Los Angeles, CA 90006

한국 이름:	영어 이름:	단과대:	학번(입학년도):	지부:
E-mail:		Cell:		
현주소:		이전주소(이전 시):		
업소명:	업소주소:	Tel:		
Check#:	Date:	Signature:		

* 신청서란을 전부 채워주세요. (성함, 영어 성함, 단과대학, 학번, 전화번호, 이메일, 현주소 등)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114 Washington Bl. #C Marina Del Rey, CA 90392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600 Wilshire Bl.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jun@junchangcpa.com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213-272-2460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70)	
T: 213-383-8553 kimandhwang@cs.com	3435 Wilshire Blvd. #94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69)	
T: 213-480-0070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Kenneth G. Yum, CPA	
윤경민 (법대 55)	
T: 213-388-6622	545 Macenta LaneDiamond Bar, CA 9176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jenni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북창동 손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8602 / siloamchung@gmail.com	680 Wilshire Pl, #420, Los Angeles, CA 90005
Ja Sung Kim Psychiatrist Clinic, APC	
김자성 (의대 79)	
T: 213-797-5953	505 Shatto Pl. #202, LA, CA 90020-1777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ddssh@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의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의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의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의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작가의 집	
김병연 (공대 68)	
T: 213-380-3000	2410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14751 Plaza Dr. Suite L, Tustin, CA 92780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fcenter.com	
변호사	
신응남 변호사	
신응남 (농대 70)	
T: 718-463-3131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익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의대)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박종효 소아과
박종효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의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워싱턴 DC |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EVS, Inc.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11325 Randi Hills Rd. Ste 650, Fairfax, VA 22030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욱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cloan.com

패밀리오피스 (Multi-Generational Wealth Management)
Wealthy & Wise Family Office
이태영(법대60, 설립자 및 상임고문) 박상우(MBA06, 한국법인 대표)
T: 808-427-8434
10320 Little Patuxent Pkwy 930, Columbia, MD 21044
Columbia MD Seoul Korea Honolulu HI
www.wealthyandwisefamilyoffice.com
Manage your family like a business


조지아

건축
Archipelago Construction LLC
석호태 (공대 85)
T: 714-656-6564 hottystone@gmail.com
2881 N Bogan Rd. Buford GA 30519

의료

Abbott Animal Hospital
오경호 (수의대 60)
T: 678-358-2605
5534 Lawrenceville Hwy, Lilburn, GA 30345

필라델피아 | PA

건축
THA Consulting, Inc
손재욱 (가정대 77)
T: 484-342-0200
480 Norristown Road. Suit 200, Blue Bell, PA 19422
www.tha-consulting.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오레곤 |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세계여행!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 떨릴 때!

40년 무사고 전미주 고객만족 1등 아주투어

US아주투어

www.usajutour.com 

 facebook.com/ajutour

 twitter.com/usajutour

T. 213-388-4000

FLONOMIX IN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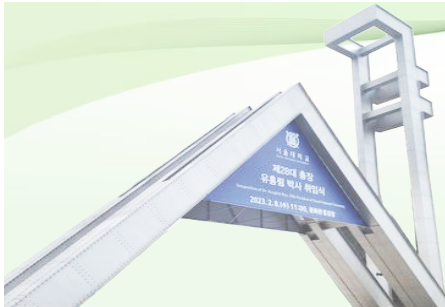
COMPUTATIONAL SOLUTIONS FOR ENGINEERING EXCELLENCE

박희진 (농대 78)

503-648-0775

www.flonomix.com


Computational Modeling Analysis | Code Studies and Seminars



애용하는 동문 업소 번창하는 동문 사업

SNU Alumni Association USA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



멋진 나눔에 감사드립니다! 백옥자 음대71입 ♥ 이경숙 가정관리학과70입
이만택 의대52입 ♥ 조무상 법학과 70입 ♥ 한귀희 회화과 68입

서울대에

천원의 식사는 학생들이 한끼 천원으로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당신의



천원의 식사에 참여하신 모든 기부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아 아너 월에 기록합니다

이름을



지금 참여 가능합니다. 아래 간단 참여신청서를 찍어 ☎ 213-435-1974로 문자를 보내주세요

새겨



간단 참여 신청서

저 성함 은(는)

매월 기부액 원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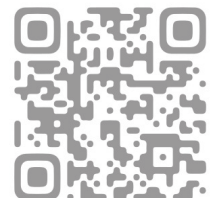
천원의 식사 후원에 참여합니다 ♥

휴대폰 번호

학과 년 입학

이 특별한 벽에 기부자님의 이름과 함께 나눔의 뜻이 널리 전해질 것입니다

드립니다



자세히 보기

제17대 미주동창회

회장 이상강(의)

상임고문: 김종섭(문), 고문: 이채진(문) 박종수(수) 박창규(약) 이홍표(의) 정재훈(공) 하기환(공) 임낙균(약) 김병연(공) 성주경(상) 박평일(농) 김인종(농) 남윤호(문) 이영일(농)

차기회장 황호숙(사)

명예회장 노명호(공)

역대회장

박윤수(문), 강수상(의), 이병준(상), 오인석(법), 이용락(공), 오홍조(차), 이영목(공), 이진구(농), 송순영(문), 김은종(상), 오인환(문), 손재욱(가), 윤상래(수) 신응남(농)

브레인 네트워크/포럼 위원회

위원장:

위원: 김정빈(공) 김재훈(공) 김유경(음) 차재호(농) 김태찬(음) 이관후(공) 이종도(공)

후원위원장 서치원(공)

위원: 차민영(의), 강성진(문)

집행부

사무총장: 김경숙(가) 총무국장: 백옥자(음) 재무국장: 최응환(상) IT국장: 최경석(사)/부국장 박문수(공, 워싱턴DC) Database 국장: 장병희(문) 섭외국장: 임항균(사)/함은선(음, 워싱턴 DC) 홍보국장: 김승배(음) 광고국장: 백정현(음) 문화국장: 김양희(음)/이주현(미, 캔사스) 사무장(간사): 박혜옥(간)

동창회보

발행인: 이상강(의) 편집고문: 김창수(약, 뉴욕) 편집장: 신복레(문) 편집위원: 장병희(문), 김양희(음), 이준수(공), 오명순(가, 캔사스) 장민구(공), 한정희(미, 워싱턴DC), 이영주(농, 뉴욕)

장학위원회

위원장: 박평일(농)

위원: 황경순(공), 이치현(약, 캔사스) 남성우(공), 김태환(자), 홍주선(상)

회칙위원회

위원장: 성주경(상)

위원: 김용현(상), 이민언(법), 최경선(농), 한재은(의) 김재권(사), 최진석(법), 임항균(사), 배규영(사)

포상위원회

위원장: 이상강(의)

위원: 각 지부 회장

감사: 김영태(미)

박현아(공)



서울대 미주동창회보 SNU Alumni Association USA

전화 (818)395-1967 이메일 snuausa17@gmail.com 웹사이트 www.snuaa.org

주소 2416 James M Wood Blvd. #B, Los Angeles, CA 90006-2005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알림: 2024년 새로 지부장이 결정된 곳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snuausa17@gmail.com

남가주 S.CA/NV (회계연도 Feb~Jan)

회장 임춘택(상대 68) T: (213)215-0446 ChoonTaikLim@gmail.com

차기 회장 채규환(법대 69) T: (818)489-7892 Kchae100@yahoo.com

북가주 SAN FRANCISCO (Feb~Jan)

김법섭(공 79) T: (408)464-4502 beomsuupkim@gmail.com

샌디에고 SAN DIEGO (Jan~Dec)

송오석(공대 91) T: (858) 349-6674 osoksong@gmail.com

워싱턴주 WASHINGTON (Jan~Dec)

임현민(공대 84) T: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mrmstf@hotmail.com

오하이오 OHIO (Jan~Dec)

이성우(상대 72) T: (614)370-5761 Rimshake@hotmail.com

하와이 HAWAII (Jul~Jun)

성낙길 (문리대 77) T: (217)508-8711 nsung@hawaii.edu

북텍사스 LA/DALLAS (Jan~Dec)

이선애(경영 85) T: (469)460-1370 sunnydayforyou@gmail.com

룩키타운스 MT/CO/WY/NM (Jan~Dec)

최문기(공대 73) mungichoi@hotmail.com

휴스턴 HOUSTON (Jan~Dec)

회장 김정환(공대 80) T: (832) 638-7194 kandc719@gmail.com

부 회장 김건호(공대 91) kunhok@gmail.com

캐나다 밴쿠버 (Jan~Dec)

성영주(간호대 86) T: (604)341-8808 helensungpark@gmail.com

오레곤 OR/ID (Jan~Dec)

박희진(농대 78) T: (503)648-0775 hjpark@flonomix.com

캐나다 앨버타 (Mar~Feb)

정중기(공대 70) T: (403)617-7585 Monica@shaw.ca

알래스카 ALASKA (Jan~Dec)

윤재중(농대 55) T: (907)223-0887 jaejoon@hotmail.com

미네소타 MINNESOTA (Jan~Dec)

용정식(농화학 86) T: (610)952-3673 jyong@umn.edu

뉴잉글랜드 MA/RI/NH/ME/VT (Jul~Jun)

최진민(공대 71) T: (617)877-0387 jinchoi52@gmail.com

미시간 MICHIGAN (Jul~June)

이광진(공대 81) T: (248) 595-2836 kmikelee@umich.edu

시카고 IL/IN/WI (Jan~Dec)

회장 조규승(문리대 72) T: (847)922-4089 kscho@magicchef.com

차기 회장 정성일(공대 86) T: (301)395-7285 jeong05@gmail.com

뉴욕 NY/NJ (July~Jun)

연영재 (공대 74) T: (201)233-7108 jayyeonsnu@gmail.com

워싱턴 DC DC/MD/VA/WV (Jan~De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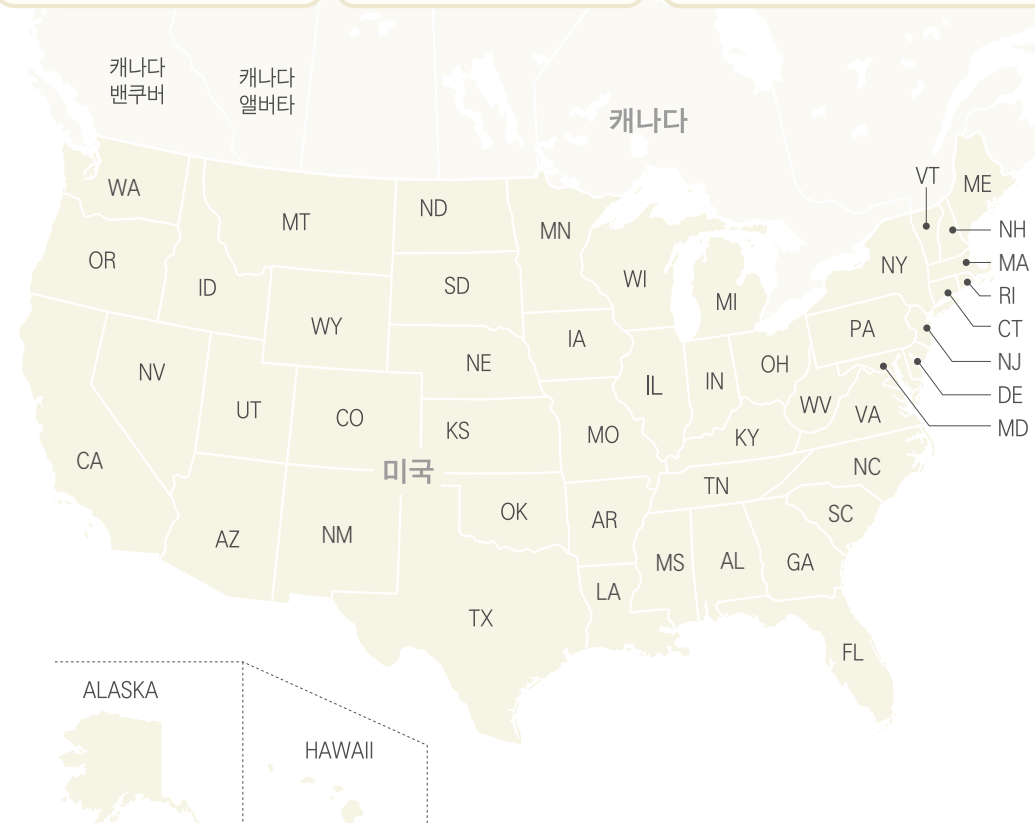
정세근(자연대 82) T: (703)785-8467 saekewn@gmail.com

커네티컷 CT

박성훈(자연대 91) T: (781)812-8778 shparkdream@gmail.com

필라델피아 PA/DE/S.NJ (Jul~Jun)

심희진(음대 90) T: (215)206-9098 hoejin.sim@gmail.com



중부텍사스 MID-TEXAS

이학호(수의대 59) T: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유타 UTAH (Jan~Dec)

김한섭(공대 93) T: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조지아 GA/AL/MS (Jan~Dec)

배혜영(음대 79) T: (678)943-9043 lhybae@gmail.com

캐롤라이나 SC/NC/KY (Jan~Dec)

정신호(자연대 78) T: (417)277-1636 sinho.jung@duke.edu

애리조나 ARIZONA

정인주(농대 82) T: (602)510-9196 snuarizona@gmail.com

하틀랜드 IA/MO/KS/NE/AR/OK (Jan~Dec)

임소연(음대 91) T: (785)764-6985 syounchun@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Jan~Dec)

윤기향(법대 65) T: (561)962-5185 Yuhn@fau.edu

테네시 TENNESSEE (Jan~Dec)

염신철(공대 98) T: (310) 689-6366 syeom@alum.utk.edu

DUO America
since 1999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결혼해듀오

듀오 뉴욕/LA 지사
구인광고 - 40대 영어와 한국말 필수

DUO America LA / NY www.duoamerica.net LA 213-383-2525 NY 212-915-7115

SR WINDOW LLC
901 E. 31st ST. Los Angeles CA 90011
C. 213-700-4119 / O. 323-232-1700 Fax 323-232-4700

유원(대학원 · 언론정보 74)

최고급 이중창문 3/4 DUAL GLASS
이중유리에 들어가는 Spacer, Screen Frame, Insulated Silicone 등 모든 부속은 미국 최대 Hardware maker인 C.R. Laurence Co. 제품입니다. SR의 PROFILE은 한국 LG 화학이 개발한 무공해 첨단소재를 사용했고 PATIO DOOR의 PROFILE은 독일제.

WINDOW PRODUCTION PERSONNEL WILL INSTALL IT.
IT ALSO SOLVES SENSITIVE AND DELICATE PARTS.
윈도우 제작 직원들이 설치합니다, 시공에도 섬세한 손길이 중요합니다.

최고급 이중창문 1999.00 BIG SALE 10 WINDOWS
DUAL GLASS / VINYL FRAME
STANDARD SIZE / TOP QUALITY

LIFETIME WARRANTY
한인최초의 창문제조공장
NFCR MEMBER (APPLIED FOR CERTIFICATION)

'윈도우'를 바꾸면 '마음의 창'도 열립니다
Window tells your personality

J.S. LEE / SUPERVISOR / TECHNICAL COLLEGE OF HANYANG UNIV. KOREA, EXCELLENT TECHNOLOGY EVALUATION AWARD(NICE) 한양공대/NICE 선정 최우수 기술평가

JUAN SUAREZ / MANAGER / 20 YEARS EXPERIENCED WINDOW PRODUCT

WON RYU / CEO / PH.D / FORMER RESEARCHER OF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FOUNDED SR WINDOW 1994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김경무공인회계사
KYUNGMOO KIM CPA

김경무(공대 69)

213) 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0 LOS ANGELES, CA 90010



김자성(의대 79)

김자성 정신과

소아부터 노년 정신의학

약물치료 및 정신치료

부부 상담

타주에서도 원격진료 가능

TEL. 213-797-5953

505 Shatto Pl. #204, Los Angeles, CA 90020